

이 과제는 2010년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2010. 6.

연구기관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제 출 문

노동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의 용역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 현 주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김 영 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재 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 경 숙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 효 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위촉연구위원)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3. 선행연구 검토 .....	8

## 제2장 결혼이민자 현황 및 취업욕구

1. 결혼이민자 현황 .....	7
가. 다문화가족 현황 .....	7
나. 결혼이민자 증가와 구성 .....	2
2. 결혼이민자 취업현황 및 취업욕구 .....	8
가. 결혼이민자 취업현황 .....	8
나.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욕구 .....	9

## 제3장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1. 중앙부처 정책현황 .....	9
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	9

나. 노동부 .....	51
다. 여성가족부 .....	56
라. 농림수산식품부 .....	58
마. 행정안전부 .....	59
바. 기타 부처 .....	61
2. 지자체 정책현황 .....	66
가. 개요 및 특징 .....	66
나. 시·도별 정책 및 사업현황 .....	78
3. 소결 .....	72

#### 제4장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	77
가.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발굴 .....	77
나.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20選 .....	83
다.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취업연계 방안 .....	86
2.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교육프로그램 예시 .....	99
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99
나.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서정리요원 양성과정 .....	101

####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	117
2. 제언 .....	121

가. 결혼이민자 인력DB의 구축 .....	1
나. 직업교육 사전교육의 강화 .....	1
다.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	1
참고문헌 .....	125

## 표 목 차

<표 2-1> 전국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 .....	9	1
<표 2-2> 전국 다문화가족 유형별 현황 .....	10	2
<표 2-3> 국내 다문화가족 국적별 구성 .....	1	2
<표 2-4> 전국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	4	2
<표 2-5> 동북아시아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	7	2
<표 2-6>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	8	2
<표 2-7> 기타국가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	9	2
<표 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 현황 .....	1	3
<표 2-9>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취업 현황 .....	3	3
<표 2-10>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	4	3
<표 2-11>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	5	3
<표 2-12> 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종 .....	6	3
<표 2-13>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종 .....	7	3

<표 2-14> 결혼이민자의 근로 소득 .....	8 3
<표 2-15> 결혼이민자의 직업상 고충 .....	9 3
<표 2-16> 현재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	10 4
<표 2-17>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의향 .....	11 4
<표 2-18> 결혼이민자의 장래 희망 직종 .....	12 4
<표 2-19>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	13 4
<표 2-20> 결혼이민자의 향후 직업훈련 요구영역 .....	14 4
<표 2-2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창업 희망 여부 .....	15 4
<표 2-2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희망 창업 분야 .....	16 4
<표 3-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	10 5
<표 4-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선정시 고려한 사항 .....	18 7
<표 4-2> 언론매체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직종 .....	18 7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기관)의 일반적 특성 .....	10 8
<표 4-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발굴 경로 .....	11 8
<표 4-5> 분야별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	13 8
<표 4-6>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의 과정별 내용구성 .....	111
<표 4-7> 도서관 도서정리요원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	111

## 그림목차

<그림 4-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선정 과정 .....	2 8
---------------------------------	-----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에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이웃이나 친척 중에 국제결혼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을 통해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이제 각종 매체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야기는 흔한 주제이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도 간혹 볼 수 있다.

각종 통계 지표에서도 국제결혼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혼인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8%에 불과했으나, 2002년 5.2%, 2003년 8.4%를 거쳐 2004년에는 10%를 넘어선 11.4%, 그리고 2008년에는 11.0%로 나타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제 한국의 혼인 유형에서 국제결혼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국제결혼의 유형 중에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2008년의 경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8,980건인데 비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28,163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현상은 출산력의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그리고 농촌-도시 인구이동 등 한국사회 전반의 성·연령 구성의 변화에 기인한다. 김두섭(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아선호에 따른 선택적 출산으로 인한 성비왜곡 뿐만 아니라, 남성이 배우자로 서너살 아래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년 출산력이 낮아지면 해당 코호트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젊은 여성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결혼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주변부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더 이상 배우자를 찾

#### 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보면 향후 한국인 남성들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오남, 2006; 이해경, 2004, 2005; 이해경 외, 2006; 홍기혜, 2000). 정부정책 측면

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깊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김영주, 2006; 이윤애, 2004; 박재규 외, 2005; 한영현, 2006; 김은숙 외, 2006; 정일선 외, 2004; 정기선 외, 2007).

그런데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sup>1)</sup> 관련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나 부부 및 가족생활 관련 연구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아마도 결혼이민 초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사회 주변부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업을 통해 이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은 가족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나아가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은데, 최근에 실시된 보건복지부(200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대다수인 86.2%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취업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인적자본은 대체로 취약하다(김영혜 외, 2009). 더욱이 국제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터라 재취업은 외국출신이 아니더라도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행여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낯선 나라의 직업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암암

---

1) 본 보고서에서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지칭함.

리에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애로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면서 동시에 외국출신 이민자라는 이들의 위치는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그리고 취업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중에서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직종을 발굴하는 일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들이 처한 특수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우리사회에서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적합직종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나아가 취업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 적합직종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특성을 감안한 적합직종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발굴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에 대한 취업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합직종을 발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취업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자료 등 결혼이민자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자 분포 현황 및 취업실태를 이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20選을 발굴하고, 일부 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끝으로 이들 직종의 취업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부부관계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이들의 취업지원 관련 사항은 당연한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취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타 결혼이민자 연구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다른 취업문제 관련 연구와 비교해서도 적합직종을 발굴하고 그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발굴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별다른 근거없이 적합직종을 나열하거나, 결혼이민자의 욕구에만 근거하여 적합직종을 제시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직종을 선정하였으므로 타 연구와 차별되는 우수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분포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결혼이민자 취업현황과 취업욕구를 분석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취업정책을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발굴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일부 적합직종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취업연계방안을 제시한다.

## 나. 연구방법

결혼이민자를 위한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기초통계자료 수집 및 관련 문헌연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사업 기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적합직종 내용에 대한 보완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결혼이민자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결혼이민자 취업관련 논문 및 자료집,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관련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2) 심층면접

-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사업 기관의 담당자 30인
- 조사내용  
사업의 개요, 결혼이민자의 특징, 애로사항, 향후 사업방향, 벤치마킹에 대한 전망, 취업연계 방안 등

### 3) 전문가 자문회의

- 결혼이민자 취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 3. 선행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주요현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은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이나 학대 및 가족생활 적응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펼쳐진 사회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다(정기선, 2008; 김경아, 2008). 이에 김형균(2006)은 국내 중앙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정책은 국내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책에 추가하는 수준에 물러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열악한 지원 실정을 강조하였다. 많은 학문적 논의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다루어 왔으나 이를 위한 복지 지원을 촉구할 뿐, 보다 적극적인 방안책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최근 2005년을 전후로 진행되어 왔다.

결혼이민자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시적 접근에 국한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들(그리고 그 2세대)에 대한 본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본국에서 취업했던 여성의 비율이 91%인데 반해 한국에서의 취업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유경 외(2008)는 결혼이민자의 19%만이 취업을 했으며, 미취업자의 67%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으로부터 소외되어 노동시장에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들의 취업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강구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유의정 외, 2010).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담이나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던 각종 단체 및 기관들도 경제활동 지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준다.

결혼이민자의 경제권을 다룬 연구는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를,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별화·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탐색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 욕구와 동기, 노동경험, 진로 기대, 취업 난제 요인 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실태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실태과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고 선정한 연구이다.

먼저 첫 번째 맥락인 취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서영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33.7%로 한국 여성의 취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으며, 비경제활동 상태인 여성들 중 73.5%가 여건만 된다면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고 보고하였다(정기선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이 대다수 사회의 주변부 위치에 있으므로써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이외 ‘자녀 교육비 충당’, ‘자기 발전’,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각기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의 취업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높게 보고된다. 이들은 ‘자녀양육’, ‘서투른 한국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 등 개인적·가족적 문제에 직면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취업알선과 더불어 창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 등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욕구도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하였고 미용기술, 조리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등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가장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 내용은

## 10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한국어(말하기, 읽기 등)교육, 한국요리 실습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한국문화 체험 및 이해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종에 상관없는 취업 알선이 아닌 자신들의 모국어와 같은 강점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직업 교육과 함께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강사·교사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영업직’, ‘기술·생산직’, ‘서비스직’, ‘관리·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장서영 외, 2008; 심인선, 2008; 안현주, 2006; 장명선 외, 2008).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구직경로는 ‘모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가족 및 친척의 소개’,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의 민간 직업알선 기관 순으로 많아 대부분 사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설동훈 외, 2005). 이에 정기선 외(2007)는 결혼이민자 교육기관과 취업 관련 인프라의 연계를 이용한 효과적인 취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한 김영혜(2007)는 인적자본 효과, 이주 및 문화적 특성의 효과, 가족효과 중 가족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힌바 있다. 즉 미취학 자녀와 동거할수록, 남편의 수입이 적을수록, 남편이 취업을 지지할수록 이주여성들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에서 ‘(기혼) 여성’과 ‘외국인’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안현주(2006)는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생활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거나 돈을 관리할 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결혼이민자들에게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경제권에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시 거주자의 85%, 농촌 거주자의 73%가 취업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있어 지역간 취업 욕구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설동훈 외, 2005).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앞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으며, 여건이 변화한다면 농업 인력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김영주, 2006; 이순형, 2006). 그런가

하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 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공장으로, 비교적 한국어에 능통한 여성은 식당, 여관, 가정 등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며,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직업교육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실력이나 학력에 따라 직업이 구분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김병숙, 2008; 김현숙, 2006).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여 적합직종을 다룬 연구의 맥락을 살펴보면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20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한국고용정보원(2008), 보건복지가족부(200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IOM정책연구원(2009), 충남발전연구원(2008) 등 대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한 한국고용정보원(2008)은 여성취업 유망직종과 결혼이민자 특화 직종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있다. 여성취업 유망직종에는 간병인, 산모도우미, 이동양육지도사, 한식조리사, 제과제빵사, 캐디, 네일아트사, 의류수선사 등이 포함되며 결혼이민자 특화직종으로는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가정 상담원, 다문화음식, 다문화미술, 지역특화 문화예술 상품, 지역특산물 제조 및 판매 등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 요인으로 학력과 본국에서의 계층을 꼽았으며, 결혼 배경 요인으로 배우자 학력, 가정 경제수준, 결혼 유형, 거주지를 유의미한 변인으로 설명하였다. 이 밖에 언어자원 및 본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 취업 관련 보유자원과 취업의지, 추구하는 일, 구직 이유 등의 취업의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에 이르는 요인으로 이중언어, 학력, 이주경험, 셀프리더십의 개인적 요인과 취업정보 및 취업기회 공유의 사회적 요인을 발견한 바 있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취업유형을 ‘국가간 사업가형’, ‘다문화전문직형’, ‘경력 추구형’, ‘맛별이지향형’, ‘이주노동자형’, ‘블루컬러노동자형’, ‘농촌전문직형’, ‘생계형 노동형’, ‘취업유예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진숙(2005)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정부·보모와 같은 재생산 노동, 시설관리, 청소 등 하층노동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장명선 외(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종범위를

확대하여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원어민 강사, 학원강사, 통·번역사 등), 보건복지서비스(간병인, 케어 복지사, 산모도우미 등), 사업지원서비스(여행사직원, 건물청소원, 골프장직원 등), 개인서비스업(미용사, 피부관리사, 봉제수선인 등) 등의 서비스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관광안내인, 한식조리사, 요리보조인 등), 도소매업(쇼핑몰판매인, 소매인 등), 제조업(생산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취업 유망직종, 특화직종, 창업 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먼저 취업 유망직종으로는 산모도우미, 방과 후 교사, 바리스타, 의류 수선사 등이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특화 직종으로는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한국어보조강사, 통·번역사,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사무직 등이 해당된다. 결혼이민자 창업 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수공예품악세사리 판매점, 다문화상품 무역업, 인터넷몰 운영 등이 파악되었다.

대한 YWCA 연합회(2008)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직업관련 기초 역량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정보화교육, 요리, 제과제빵, 이·미용, 양재 등을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언어적 자질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직종으로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인과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며, 국적에 따라 노동 시장에 달리 투입된다는 이해경(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특수성에 맞게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의 경우 다른 국적의 여성들에 비해 취업욕구가 낮은 반면 양성평등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중국 출신여성은 취업욕구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 역시 양계적 전통이 강하여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김영혜, 2007; 이해경, 2004). 이상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들은 출신 국적별로 희망직종을 달리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국가별 특성에 역점을 두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집단에 따라 취업 교육과 연계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취업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윤인진외(2009)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 창업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영업에 관한 경험과 기술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한국에서의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창업을 선택하게 됨을 밝혔다. 이 연구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활방안으로서 계층자원, 가족자원, 종족자원 외에 시민자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시민자원을 통한 창업 자활 모델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왔던 사회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점이 진정한 복지정책의 의미임을 역설하였다. 정기선 외(2007)는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계수입이 증가하면 경제적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신경애, 2009).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경제력을 지니는 것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선주 외, 2008; 장서영 외, 2008). 대한 YWCA 연합회(2010)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직업은 생계 수단에 그치지 않고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과 보람, 삶의 이유라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시민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교육과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자기능력개발과 자신감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적합직종이나 아이템 발굴, 교육프로그램개발 예산확보, 교육과 취업지원 연계,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 유도, 가정보호와 모성보호, 성공모델의 발굴을 통한 비전제시, 직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주장하였다(김현숙, 2006; 장명선, 2009).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여 리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대로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 특히 취·창업에 관한 연구는 점차 학문적으로 구체화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혼인형태, 국제결혼 방법 등

여러 준거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토대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창업활동에 관한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자 한다.

## 결혼이민자 현황 및 취업육구

1. 결혼이민자 현황
2. 결혼이민자 취업현황 및 육구





## 1. 결혼이민자 현황

### 가. 다문화가족 현황

#### 1) 다문화가족의 구성과 특성

국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김이선 외, 2006; 김혜순 외, 2007; 설동훈 외, 2005; 이해경 외, 2007; 최종렬 외, 2007). 정부 또한 2005년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비롯하여 2006년에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등을 발표하였고,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사회 다문화가족 담론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이끈 초기 추진력은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과 국제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 산업의 고도화 및 임금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3D 업종분야의 인력난을 심화시켰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정부는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산업체에 진출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80년대 통일교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다문화가정 증가를 촉발시켰다. 농촌지역 남성의 경우 성비 불균형 및 여성의 농촌지역 정착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서 노총각문제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결혼중개업체 및 종교단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박재규 외, 2005). 이 상과 같이 우리사회 다문화담론이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향후 외국인 가족 자녀 급증이 핵심 추진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외국인 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9.7%를 차지하였고, 2008년 58,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통계청(2009)은 2050년에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국내 영아의 33.2%, 유아(3~5세)의 19.2%, 초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0%, 고등학생의 10.1% 그리고 대학생의 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우리사회 다문화가족은 외국인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인구의 2.2%(약 1,107천명)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7%(74천명)에 불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83.6%(925천명)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표 2-1> 참조). 국내 다문화가족의 분포는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서울(3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다문화가족 비율과 비슷하게 29.2%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일부 지역의 국적 취득 다문화가족 비율은 전국 다문화가족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이 15.6%로 전국 다문화가족 비율 30.3%에 비해 1/2 수준으로 낮고, 경기도 또한 23.8%로 전국 다문화가족 비율 29.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경남(7.5%)과 전남(7.1%)을 비롯하여 충남(5.9%) 등 다수의 지역들은 전체 다문화가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혼인귀화 혹은 결혼이민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나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전국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자녀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2-1&gt; 전국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2009. 5)

(단위 : 천명, %)

구분	주민 등록 인구	인구 대비 (%)	외국인주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계	비율 (%)	소계	외국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기타 사유	소계	외국인 부모	외-한국 인부모	한국인 부모
합계	49,594	2.2	1,107	100	925	576	126	77	44	103	74	41	32	108	4	89	15
서울	10,219	3.3	335	30.3	291	170	30	22	24	45	27	9	18	17	2	13	2
부산	3,556	1.2	41	3.7	33	16	56	58	13	51	2	19	0.4	51	0.04	43	0.8
대구	2,492	1.0	25	2.3	20	10	38	30	0.8	26	1	12	0.2	37	0.08	31	0.5
인천	2,693	2.3	62	5.6	50	32	74	19	15	68	5	31	14	67	0.4	49	13
광주	1,425	1.1	16	1.4	12	5	25	30	0.4	12	1	0.8	0.1	24	0.03	21	0.3
대전	1,482	1.3	18	1.7	15	4	28	50	0.9	23	1	0.8	0.2	24	0.02	20	0.4
울산	1,113	1.7	19	1.7	16	11	24	0.3	0.2	20	1	0.6	0.4	25	20.03	19	0.6
경기	11,336	2.9	324	29.3	277	205	32	69	10.6	21.6	21	12.3	92	26	13	20	44
강원	1,509	1.3	19	1.7	13	5	30	28	0.6	17	1	12	0.3	40	0.05	36	0.4
충북	1,522	1.9	28	2.6	23	14	39	35	0.5	17	1	10	0.2	37	0.03	33	0.5
충남	2,021	2.3	46	4.1	37	22	60	58	0.6	25	3	21	0.6	64	0.1	57	0.6
전북	1,854	1.5	27	2.5	20	76	51	47	0.5	20	2	16	0.2	55	0.03	48	0.6
전남	1,916	1.6	30	2.7	21	11	57	28	0.3	15	2	16	0.2	73	0.2	67	0.6
경북	2,670	1.7	45	4.1	37	21	65	68	0.7	20	2	16	0.3	64	0.4	57	0.7
경남	3,228	2.0	64	5.8	54	38	76	25	0.6	50	3	20	0.5	81	0.6	70	10
제주	561	1.2	7	0.6	5	3	11	0.8	0.2	0.6	1	0.3	0.07	12	0.005	10	0.2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2) 다문화가족의 성별 및 국적별 구성

2009년 다문화가족의 성별 구성에 의하면, 남성이 52.8%로서 여성 47.2%에 비해 5.6%가 높았다(<표 2-2> 참조). 이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에서 남성이 67.1%로서 여성 33.9%에 비해 2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결혼이민자 125,673명 중에 여성이 87.9%를 차지하여 남성 12.1%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그 밖의 유학생이나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2> 전국 다문화가족 유형별 현황(2009.5)

(단위 : 명)

구성	전체	남성	여성
합 계	1,106,884 (100.0)	584,697(52.8)	522,187(47.2)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925,470 (83.6)	514,009	411,461
외국인근로자	575,657(52.0)	386,204	189,453
결혼이민자	125,673(11.4)	15,190	110,483
유학생	77,322(7.0)	39,031	38,291
재외 동포	43,703(4.0)	20,841	22,862
기타 외국인	103,115(9.3)	52,743	50,372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73,725(6.7)	15,798	57,927
혼인귀화자	41,417(3.7)	2,047	39,370
기타 국적취득자	32,308(3.0)	13,751	18,557
외국인주민 자녀	107,689(9.7)	54,890	52,799
외국인부모	4,205(0.4)	2,048	2,157
외국인-한국인	88,485(8.0)	45,081	43,404
한국인부모	14,999(1.6)	7,761	7,238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2009년 국내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구성 <표 2-3>에 의하면, 중국 국적(조선족 포함) 가족이 56.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9.8%, 필리핀 4.9%, 미국 5.4%, 태국 2.8%,

인도네시아 2.5%, 일본, 2.4%, 대만과 몽골이 각각 2.1%, 그리고 기타 국적의 다문화가족이 11.6%를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성별 구성을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이 많은 반면 나머지 국적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았다. 즉 중국 국적 다문화가족의 경우 여성이 334,308명으로 남성의 290,686명에 비해 43,622명이 더 많고, 일본 국적 다문화가족 또한 여성이 17,122명으로 남성 9,402명에 비해 7,720명 더 많았다. 그러나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기타 국적의 남성은 여성보다 많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적의 경우 남성이 24,672명으로 여성 2,991명에 비해 8배 이상 많았고, 기타 국적의 남성 또한 여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베트남, 필리핀, 미국, 대만 국적의 경우 성별 차이가 크지 않거나 비슷하였다.

<표 2-3> 국내 다문화가족 국적별 구성

(단위 : 명, %)

국적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106,884(100.0)	584,697(100.0)	522,187(100.0)
중국 (조선족 포함)	624,994(56.5)	290,686(49.7)	334,308(64.0)
베트남	107,969(9.8)	57,840(9.9)	50,129(9.6)
필리핀	53,965(4.9)	29,486(5.0)	24,479(4.7)
태국	30,760(2.8)	23,325(4.0)	7,435(1.4)
미국	59,870(5.4)	32,339(5.5)	27,531(5.3)
몽골	22,892(2.1)	13,842(2.4)	9,050(1.7)
인도네시아	27,663(2.5)	24,672(4.2)	2,991(0.6)
일본	26,524(2.4)	9,402(1.6)	17,122(3.3)
대만	23,447(2.1)	12,386(2.1)	11,061(2.1)
기타	128,800(11.6)	90,719(15.5)	38,081(7.3)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 나. 결혼이민자 증가와 구성

### 1) 결혼이민자의 증가

우리사회 초기 국제결혼의 양상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 통일교가 교단사업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심화되자 해결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농촌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도시 저소득층 남성이 합류하면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였다(박재규 외, 2005). 특히 2000년 이후 크게 활성화된 국제결혼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최근 이들의 가족해체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이혼은 2005년 5,794건으로 25.8%였으나 2006년에 6,280건으로 46.8%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도 8,828건으로 40.5%, 2008년 또한 11,255건으로 29.8%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의 급증과 동시에 이혼 건수도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전체 국제결혼에서 25만 이상으로 많지만, 현재 파악되고 있는 여성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각각 11만 명과 4만 명으로 약 15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혼인 건수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부족하게 파악되는 것은 이혼 등의 가족해체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국제결혼은 약 40만 건 정도 발생하였지만 여성결혼이민자는 125,673명이며 여기에 혼인귀화자 41,417명을 합하면 167,090명 정도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및 국적별 분포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표 2-4>에 의하면, 전체 결혼이민자 125,673명 중에 여성이민자가 110,483명으로 87.9%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12.1%에 불과하여 뚜렷한 성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결혼이민자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가 32,444명인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시가 23.9%, 경상남도가 6.0%, 인천시가 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등의 동북아시아 출신이 60.9%(76,553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이 32.1%(40,380명)를 차지하였다. 그 외 남부 및 중앙아시아 출신이 2.9%, 기타 출신이 4%를 차지하였다. 여성이민자의 경우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이민자의 경우 남부 및 중앙아시아 국적이 38.5%를 차지하였다. 기타 국적으로 분류된 이민자의 경우 남성이 59.4%로 여성 40.6%보다 약 20%p 높았다. 이러한 성차는 한국 남성이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한국 여성은 조선족을 비롯한 기타 국적의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거주 지역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77.1%), 인천(71.8%), 경기도(69.9%)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경우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상북도(59.1%), 전라북도(56.6%), 경상남도(55.6%), 충청북도(50.4%), 충청남도(44.2%)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경우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산업연수생' 등과 같은 근로자 신분이나 혹은 전문직 종사자로 입국한 외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 남성이 이들 국적의 여성을 국제결혼 배우자로 선택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표 2-4> 전국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중앙아시아			기타			전체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 계	76,553	10,197	66,356	40,380	479	39,901	3,670	1,411	2,259	5,070	3,103	1,967	125,673	15,190	110,483
서울 특별시	23,150	4,502	18,648	4,258	139	4,119	745	318	427	1,866	1,214	652	30,019	6,173	23,846
부산 광역시	2,984	257	2,727	2,083	11	2,072	133	47	86	397	209	188	5,597	524	5,073
대구 광역시	1,916	157	1,759	1,556	15	1,541	132	65	67	188	116	72	3,792	353	3,439
인천 광역시	5,285	731	4,554	1,551	42	1,509	302	162	140	222	110	112	7,360	1,045	6,315
광주 광역시	1,349	97	1,252	982	5	977	61	11	50	87	60	27	2,479	173	2,306
대전 광역시	1,465	145	1,320	1,100	7	1,093	102	11	91	157	94	63	2,824	257	2,567
울산 광역시	1,001	87	914	1,233	5	1,228	57	19	38	65	42	23	2,356	153	2,203
경기도	22,684	3,214	19,470	7,227	171	7,056	1,231	596	635	1,302	784	518	32,444	4,765	27,679
강원도	1,367	95	1,272	1,470	8	1,462	105	6	99	82	51	31	3,024	160	2,864
충청북도	2,005	148	1,857	1,721	8	1,713	91	28	63	80	48	32	3,897	232	3,665
충청남도	2,706	199	2,507	3,002	14	2,988	137	29	108	108	59	49	5,953	301	5,652
전라북도	2,533	125	2,408	2,428	5	2,423	99	4	95	87	46	41	5,147	180	4,967
전라남도	2,318	85	2,233	3,206	5	3,201	90	6	84	47	28	19	5,661	124	5,537
경상북도	2,376	138	2,238	3,813	12	3,801	119	31	88	144	85	59	6,452	266	6,186
경상남도	2,919	180	2,739	4,208	30	4,178	245	77	168	196	126	70	7,568	413	7,155
제주도	495	37	458	542	2	540	21	1	20	42	31	11	1,100	71	1,029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 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및 지역별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결혼이민자의 권역별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적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자 76,553명 가운데 중국 한족과 조선족이 각각 33,457명과 35,386명으로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출신이 5,050명, 몽골 출신이 2,309, 대만 출신이 351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국내 거주 지역 분포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 이민자가 각각 30.2%와 29.6%를 차지하였고, 인천 3.9%, 경남 3.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중국 한족 출신이 많이 거주하는 반면 서울, 대구, 울산 등의 지역에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표 2-5> 참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전체 40,38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98.8%를 차지하여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 출신이 7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 출신이 15.2%, 태국 출신이 5.2%, 인도네시아 출신이 1%, 기타 출신이 7.3% 등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중에 경기도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7.9%와 10.6%로 높게 나타났지만 동북아시아 출신 비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경남 10.4%, 경북 9.5%, 전남 7.9%, 충남 7.4%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경남과 경북 등을 비롯하여 전남, 충남, 전북, 부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전남과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5> 참조).

다음으로 남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미국, 러시아 등의 기타 국가 출신 이민자는 총 8,740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7%를 차지하였다.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남녀 비율은 51.7%와 48.3%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시아 출신 1,762명 중에서 남성이 76.2%를, 미국과 기타 출신의 경우에도 남성이 각각 67.8%와 77.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출신 여성이민자가 96.4%를 차지하였고, 러시아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도 94.6%를 차지하여 국가별 성차가 매우 큰 편이다.

남성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많은 이유는 산업연수 혹은 일자

## 26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리와 관련하여 입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부아시아, 미국, 기타 국적 출신 이민자 중에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가 각각 62.3%, 69.5%, 62.7% 로 높은 반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국적의 경우 46.1%와 50.2%로 낮아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은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고, 러시아 출신 이민자의 경우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과 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2-5&gt; 동북아시아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전체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33,457	3,202	30,255	35,386	6,388	28,998	351	53	298	5,050	511	4,539	2,309	43	2,266	76,553	10,197	66,356
서울특별시	6,173	737	5,436	15,174	3,550	11,624	127	19	108	1,270	180	1,090	406	16	390	23,150	4,502	18,648
부산광역시	1,688	125	1,563	1,008	79	929	13	3	10	227	50	177	48	0	48	2,984	257	2,727
대구광역시	828	34	794	895	111	784	11	3	8	153	9	144	29	0	29	1,916	157	1,759
인천광역시	3,145	382	2,763	1,741	312	1,429	34	5	29	213	25	188	152	7	145	5,285	731	4,554
광주광역시	769	39	730	411	52	359	4	0	4	106	5	101	59	1	58	1,349	97	1,252
대전광역시	1,029	104	925	312	34	278	6	1	5	83	6	77	35	0	35	1,465	145	1,320
울산광역시	408	17	391	477	63	414	3	1	2	54	6	48	59	0	59	1,001	87	914
경기도	10,873	1,339	9,534	9,740	1,713	8,027	106	13	93	1,251	134	1,117	714	15	699	22,684	3,214	19,470
강원도	604	37	567	578	48	530	5	1	4	136	9	127	44	0	44	1,367	95	1,272
충청북도	966	67	899	717	73	644	3	1	2	141	6	135	178	1	177	2,005	148	1,857
충청남도	1,519	94	1,425	822	79	743	7	3	4	247	23	224	111	0	111	2,706	199	2,507
전라북도	1,354	47	1,307	905	71	834	8	0	8	192	7	185	74	0	74	2,533	125	2,408
전라남도	1,097	27	1,070	720	51	669	3	0	3	336	6	330	162	1	161	2,318	85	2,233
경상북도	1,074	46	1,028	963	80	883	3	0	3	243	11	232	93	1	92	2,376	138	2,238
경상남도	1,687	99	1,588	752	61	691	15	2	13	329	17	312	136	1	135	2,919	180	2,739
제주도	243	8	235	171	11	160	3	1	2	69	17	52	9	0	9	495	37	458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28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표 2-6>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전체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28,817	150	28,667	6,117	169	5,948	2,092	39	2,053	402	50	352	2,952	71	2,881	40,380	479	39,901
서울특별시	2,881	52	2,829	723	47	676	309	2	307	58	8	50	287	30	257	4,258	139	4,119
부산광역시	1,579	3	1,576	273	7	266	61	0	61	39	0	39	131	1	130	2,083	11	2,072
대구광역시	1,259	7	1,252	106	2	104	66	0	66	19	4	15	106	2	104	1,556	15	1,541
인천광역시	990	10	980	261	15	246	177	5	172	26	3	23	97	9	88	1,551	42	1,509
광주광역시	660	2	658	173	2	171	56	1	55	4	0	4	89	0	89	982	5	977
대전광역시	801	1	800	173	3	170	24	0	24	15	3	12	87	0	87	1,100	7	1,093
울산광역시	1,024	1	1,023	113	2	111	22	1	21	4	0	4	70	1	69	1,233	5	1,228
경기도	4,826	42	4,784	1,160	63	1,097	628	20	608	130	22	108	483	24	459	7,227	171	7,056
강원도	945	3	942	329	2	327	61	1	60	3	1	2	132	1	131	1,470	8	1,462
충청북도	1,246	1	1,245	289	5	284	81	0	81	12	2	10	93	0	93	1,721	8	1,713
충청남도	2,071	7	2,064	571	2	569	133	4	129	26	0	26	201	1	200	3,002	14	2,988
전라북도	1,656	2	1,654	434	3	431	70	0	70	7	0	7	261	0	261	2,428	5	2,423
전라남도	2,126	2	2,124	609	1	608	143	1	142	12	1	11	316	0	316	3,206	5	3,201
경상북도	3,093	4	3,089	355	5	350	114	1	113	30	2	28	221	0	221	3,813	12	3,801
경상남도	3,320	13	3,307	393	10	383	137	2	135	17	4	13	341	1	340	4,208	30	4,178
제주도	340	0	340	155	0	155	10	1	9	0	0	0	37	1	36	542	2	54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lt;표 2-7&gt; 기타국가 결혼이민자 지역 및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남부아시아			중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전체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1,762	1,342	420	1,908	69	1,839	1,575	1,067	508	947	51	896	2,548	1,985	563	8,740	4,514	4,226
서울특별시	403	301	102	342	17	325	683	402	281	217	14	203	966	798	168	2,611	1,532	1,079
부산광역시	58	43	15	75	4	71	64	59	5	158	7	151	175	143	32	530	256	274
대구광역시	77	64	13	55	1	54	58	40	18	44	2	42	86	74	12	320	181	139
인천광역시	172	154	18	130	8	122	45	35	10	63	2	61	114	73	41	524	272	252
광주광역시	19	10	9	42	1	41	27	22	5	13	1	12	47	37	10	148	71	77
대전광역시	18	7	11	84	4	80	61	41	20	32	2	30	64	51	13	259	105	154
울산광역시	21	11	10	36	8	28	13	8	5	17	7	10	35	27	8	122	61	61
경기도	694	581	113	537	15	522	412	301	111	258	8	250	632	475	157	2,533	1,380	1,153
강원도	10	5	5	95	1	94	30	24	6	16	1	15	36	26	10	187	57	130
충청북도	37	26	11	54	2	52	16	12	4	19	1	18	45	35	10	171	76	95
충청남도	41	27	14	96	2	94	23	18	5	24	2	22	61	39	22	245	88	157
전라북도	17	4	13	82	0	82	26	18	8	16	0	16	45	28	17	186	50	136
전라남도	13	6	7	77	0	77	12	9	3	2	0	2	33	19	14	137	34	103
경상북도	41	30	11	78	1	77	45	29	16	20	0	20	79	56	23	263	116	147
경상남도	135	72	63	110	5	105	43	34	9	40	3	37	113	89	24	441	203	238
제주도	6	1	5	15	0	15	17	15	2	8	1	7	17	15	2	63	32	31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9.

## 2. 결혼이민자 취업현황 및 취업욕구

앞서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검토하였듯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약 126천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취업자 수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서 한국인의 경제활동 및 취업실태에 관한 자료는 조사 및 파악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자활 문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05; 여성부, 2006; 전북발전연구원, 2005;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된 여러 연구결과 중에 전국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혼이민자 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실태를 파악하였다. 즉 2006년 여성부가 전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약 1,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자료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결혼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취업현황을 파악하였는데,<sup>2)</sup>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3)</sup>

### 가. 결혼이민자 취업 현황

#### 1) 결혼이민자의 취업 비율

---

2) 정부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전체 다문화가족 중 55.9%만이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외 2010). 그러나 결혼이민자 분석은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수로 추정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3) 본 연구는 여성부의 2006년 조사결과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2009년 조사결과를 이용하면서 비교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성별분리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성별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로 통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개 자료의 비교가 불가능할지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결혼이민자의 2006년과 2009년의 취업률을 비교하면 <표 2-8>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2006년과 2009년 취업률은 약 40%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 취업률이 약 65%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결혼이민자의 취업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2006년 34.2%에서 2009년 36.9%로 2.7%p 증가하여 다소 확대되었다. 이처럼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낮을지라도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즉 본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4.7%로 현재 취업률 36.9%에 비해 약 30%p 높았다(2009). 또한 국내 취업 경험을 갖고 있는 이민자는 21.8%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여성이민자가 22.2%로 남성의 1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민자와 달리 남성이민자의 취업률은 2006년 91.8%, 2009년 74.3%로 한국남성의 취업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이민자의 배우자 취업현황은 2006년 92.3%에서 2009년 85.6%로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민자의 배우자 취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그 배우자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 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현재 취업	91.8(108)	34.2(363)	39.7(471)	74.3(8,389)	36.9(43,477)	40.2( 51,905)
국내 취업 경험	-	-	-	17.6(1,987)	22.2(26,157)	21.8(28,148)
본국 취업	-	-	-	82.2(8,831)	74.7(83,087)	75.3( 91,843)
배우자취업	64.3( 71)	92.3(978)	90.9(1,049)	57.0(6,159)	85.6(97,499)	83.1(103,631)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취업률을 비교하면 <표 2-9>와 같다. 2006년과 2009년 조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6년 조사에서 몽골, 태국, 캄보디아,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범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6년 조사 당시에는 이들 국적의 이민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 집단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9년 조사에서 이들 국적이 포함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비율은 국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을 비롯하여 북미·호주·서유럽, 필리핀, 한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북미나 호주, 서유럽 국적의 이민자 중 76.2%가, 조선족 중에도 52.4%가 2009년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 국적의 이민자 취업 비율이 높은 것은 언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북미나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원·학교·관공서 등에서 영어 관련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2006년 7%, 2009년 21.2%), 캄보디아(2009년 12.2%), 몽골(2009년 31%) 출신의 결혼이민자 취업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의 경우, 최근에 입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태국이나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취업 비율도 평균 40%보다 낮았다.



&lt;표 2-9&gt;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국적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중국(조선족)	49.9(282)	52.4(20,583)
중국(한족 등)	49.6( 62)	39.9(14,063)
베트남	7.0( 33)	21.2( 5,321)
필리핀	5.9( 28)	41.6( 3,548)
몽골	-	31.0( 555)
태국	-	36.8( 623)
캄보디아	-	12.2( 315)
일본	4.7( 22)	35.9( 1,931)
북미·호주서유럽	-	76.2( 1,804)
기타	40.2( 37)	44.1( 3,153)
전체	39.7(471)	40.2(51,896)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 2) 결혼이민자의 구직 경로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어떠한 경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분석한 <표 2-10>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대중홍보 방법보다 사적 소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의 소개로 취업한 경우가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본국 및 국내 친구 등의 소개로 취업한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이나 사설 직업 알선기관의 소개로 취업한 경우는 각각 5.6%와 8.3%로 높지 않았고, 대중매체 및 전단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18.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주로 사적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민자 집단 간의 취업경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성이민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및 대중매체 홍보물을 통해 취업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이민자는 친구지인의 소개나 사설 직업 알선기

3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관의 소개로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0>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단위: %, 명)

구분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나의 가족·친척소개	8.8(840)	11.2(6,967)	10.9(7,820)
배우자의 가족·친척소개	7.3(697)	12.6(7,837)	11.9(8,538)
모국인의 친구·지인의 소개	21.5(2,052)	18.1(11,258)	18.5(13,237)
한국인의 친구·지인의 소개	15.9(1,518)	15.0(9,330)	15.1(10,834)
공공기관의 소개	5.1(487)	5.7(3,545)	5.6(4,018)
사실직업 알선기관을 통해	9.4(897)	8.1(5,038)	8.3(5,955)
대중매체나 진단지를 보고	14.5(1,384)	19.1(11,880)	18.4(13,201)
기타	17.5(1,670)	10.3(6,407)	11.3(8,107)
합계	100.0(9,546)	100.0(62,201)	100.0(71,747)

자료: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 3) 결혼이민자 고용지위 및 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떤 지위에 고용되어 있는지 분석한 <표 2-11>에 의하면, 고용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응답자 중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27.9%에 불과하였다. 남성이 39%로 여성 26%에 비해 13%p 높아 여성의 고용지위 불안정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이민자가 51.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53.2%로 남성의 41.5%에 비해 11.7%p나 높아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가 6.9%, 무급가족종사자가 2.2%, 고용주 지위에 있는 이민자가 2.3% 등으로 나타났다.

&lt;표 2-11&gt;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상용직	39.0(3,346)	26.0(13,732)	27.9(17,130)
임시직	23.3(2,000)	38.4(20,280)	36.3(22,288)
일용직	18.2(1,560)	14.8(7,817)	15.3(9,394)
단독자영업자	8.1(695)	6.7(3,539)	6.9(4,237)
고용주	3.4(290)	2.1(1,109)	2.3(1,412)
무급가족종사자	0.8(68)	2.4(1,268)	2.2(1,351)
기타	7.3(625)	9.6(5,070)	9.1(5,587)
합계	100.0(8,584)	100.0(52,815)	100.0(61,399)

자료 :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종에 대한 분석은 <표 2-12>와 같이 2006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들이 31.6%로 가장 많았으나 2009년도의 경우 공장·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수가 34.8%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과 공장·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준전문직, 자영업, 사무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는 3.2%로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전문 및 준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2006년 11.0%에서 2009년 13.6%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농어민이나 자영업,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9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성별 직종을 비교하면, 남성은 공장 및 육체노동직과 전문 및 준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 사무직, 그리고 농어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공장 및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이 2006년 58.4%, 2009년 49.4% 등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여성은 30% 수준으로 낮았다. 그리고 전문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2006년 37.2%, 2009년 32.5% 등 1/3 수준을 차지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10% 수준으로 낮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어민

의 경우에도 여성이 2006년 6.2%, 2009년 3.5%로 남성의 1%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과 자영업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직종 차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12> 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종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농어민	0.0( 0)	6.2( 23)	4.8( 23)	1.2( 108)	3.5( 2,002)	3.2( 2,118)
자영업	5.9( 6)	10.3( 38)	9.3( 44)	5.0( 450)	5.9( 3,374)	5.8( 3,839)
서비스	10.9(11)	37.3(138)	31.6(149)	10.1( 909)	32.5(18,588)	29.4(19,460)
공장·육체노동	58.4(59)	23.5( 87)	30.9(146)	49.4(4,445)	32.5(18,588)	34.8(23,034)
사무직	4.0( 4)	7.0( 26)	6.3( 30)	3.1( 279)	3.5( 2,002)	3.4( 2,250)
전문·준전문직	14.9(15)	10.0( 37)	11.0( 52)	21.2(1,907)	12.4( 7,092)	13.6( 9,002)
기타	10.9(11)	4.3( 16)	5.7( 27)	10.0( 899)	10.2(5,834)	9.8( 6,487)
합계	100.0(101)	100.0(370)	100.0(471)	100.0 (8,997)	100.0(57,194)	100.0(66,191)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종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3>과 같이 앞에서 분석한 현재 취업 직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2006년 23.1%, 2009년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외 나머지 여성결혼이민자는 본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집단의 노동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국내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종사한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직에 종사한 사람이 2006년과 2009년 모두 20% 이하로 낮게 나타난 반면 공장 및 육체노동에 종사한 사람은 2006년 15.7%, 2009년 23.6%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각각 18.8%와 12.0%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6.7%와 14.8%로 나

타났고, 전문 및 준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도 10.2%와 14.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3차 산업보다 제1차 및 제2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본국의 직종에서 성별 차이를 비교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서비스직을 비롯하여 사무직에 종사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이민자는 공장 및 육체노동이나 전문 및 준전문직, 그리고 농어민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는 2006년 자료에서 남성이 높은 반면 2009년 자료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3>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종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농어민	12.2 (11)	6.7 ( 61)	7.2 ( 72)	11.3 ( 881)	5.4 ( 3,861)	6.0 ( 4,760)
자영업	12.2 (11)	6.1 ( 56)	6.7 ( 67)	9.3 ( 725)	15.4 (11,014)	14.8 (11,739)
서비스	6.7 ( 6)	20.3 (185)	19.1 (191)	11.1 ( 866)	20.7 (14,805)	19.7 (15,626)
공장·육체노동	28.9 (26)	14.4 (131)	15.7 (157)	26.2 (2,044)	23.3 (16,664)	23.6 (18,720)
사무직	11.1 (10)	18.8 (171)	18.1 (181)	8.6 ( 671)	12.3 ( 8,797)	12.0 ( 9,518)
전문·준전문직	21.1 (19)	9.1 ( 83)	10.2 (102)	21.5 (1,677)	13.4 (9,584)	14.2 (11,263)
무직·기타	7.8 ( 7)	24.6 (224)	23.1 (231)	12.0 ( 936)	9.5 (6,795)	9.7 ( 6,722)
합계	100.0 (90)	100.0 (911)	100.0 (1,001)	100.0 (7,800)	100.0 (71,520)	100.0 (79,320)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 4) 결혼이민자의 임금과 고충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소득은 <표 2-14>와 같이 약 1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도시근로자 2009년 평균소득인 약 389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혼이민자 집단의 근로소득이 낮은 것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고용지위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분포에 의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여성이민자의 경우 66.7%로 남성의 24.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다음으로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1.6%를 차지하였지만 남성이민자가 48.1%로 여성이민자의 29.1%에 비해 19%p 높았다. 또한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이민자는 여성이 1.8%에 불과하나 남성은 11.1%로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2-14> 결혼이민자의 근로 소득

(단위: %, 명)

구분	2009년 자료		
	남성	여성	전체
100만원 미만 (없음 포함)	24.1(2,361)	66.7(42,753)	60.9(45,114)
100~200만원 미만	48.1(4,712)	29.1(18,653)	31.6(23,347)
200~300만원 미만	16.7(1,636)	2.4(1,538)	4.3( 3,174)
300만원 이상	11.1(1,087)	1.8(1,154)	4.1( 2,241)
평균소득(만원)	175.9	98.7	108.9
합계	100.0(9,796)	100.0(64,098)	100.0(73,894)

자료 :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결혼이민자가 취업 후 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2006년 자료와 2009년 자료의 분류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공통적인 측면도 발견되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들 중 30% 이상이 언어소통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을 지적하는 결혼이민자들 또한 20% 이상으로 높고, 고된 일에 힘이 부친다고 응답한 사람도 약 1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종사하는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부담으로 고생하는 결혼이민자는 2006년 30% 이상으로 높았으나 2009년에는 약 12% 정도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두 시점의 조사과정에서 직업상 고충 원인에 대한 범주의 부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어려움을 지적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일-가정 양립과정에서 갈등이 높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성별 차이는 가사 및 자녀양육 외에 현저히 크지 않았고, 특히 취업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7% 정도로 나타났다.

&lt;표 2-15&gt; 결혼이민자의 직업상 고충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녀양육부담	17.3 (13)	23.9 (53)	22.2 (66)	3.3 ( 323)	9.1 ( 5,904)	8.3 ( 6,201)
낮은 임금수준	22.7 (17)	21.6 (48)	21.9 (65)	13.2 (1,297)	9.7 ( 6,294)	10.2 ( 7,620)
긴 노동시간	20.0 (15)	12.2 (27)	14.1 (42)	10.9 (1,071)	10.4 ( 6,748)	10.5 ( 7,844)
가사부담	2.7 ( 2)	16.2 (36)	12.8 (38)	0.7 ( 69)	5.1 ( 3,309)	4.5 ( 3,362)
고된 일에 힘이 부침	6.7 ( 5)	8.1 (18)	7.7 (23)	10.8 (1,061)	11.0 ( 7,137)	10.9 ( 8,143)
언어소통의 어려움	-	-	-	17.4 (1,709)	22.3 (14,469)	21.6 (16,136)
외국인에 대한 편견	-	-	-	17.5 (1,719)	11.1 (7202)	12.0 (897)
어려움 없음	-	-	-	18.3 (1,797)	16.6 (10,770)	16.8 (12,560)
기타	30.7 (23)	18.0 (40)	21.2 (63)	7.9 (777)	4.7 (3050)	5.2 (3,885)
합계	100.0 (75)	100.0 (222)	100.0 (297)	100.0 (9,823)	100.0 (64,883)	100.0 (74,706)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 나.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욕구

### 1) 미취업 이유

여성결혼이민자의 약 60%는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6>과 같다.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약 1/2 정도는 자녀양육 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53.6%, 2009년의 경우 49.1%가 자녀양육을 미취업원인으로 지적하였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민자가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소통에 제약이 있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민자가 약 10%(2006년 7.6%, 2009년 13.0%),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거나 또는 가족의 반대 때문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민자 또한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민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성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한 일자리를 차지 못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도 2006년 18.6%, 2009년 9.8%로 나타났다.

<표 2-16> 현재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녀양육	12.5 (1)	54.1 (351)	53.6 (352)	5.2 (123)	50.7 (34,650)	49.1 (34,731)
일자리를 찾지 못해	62.5 (5)	18.0 (117)	18.6 (122)	20.1 (481)	9.2 (6,288)	9.6 (6,791)
서툰 한국어말	12.5 (1)	7.6 (49)	7.6 (50)	12.5 (299)	13.1 (8,953)	13.0 (9,195)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0.0 (0)	5.7 (37)	5.6 (37)	0.4 (10)	4.4 (3,007)	4.3 (3,042)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	0.0 (0)	4.9 (32)	4.9 (32)	1.5 (36)	6.5 (4,443)	6.4 (4,527)
기타	12.5 (1)	9.7 (63)	9.7 (64)	60.3 (1,442)	16.1 (11,003)	17.6 (12,450)
합계	100.0 (8)	100.0 (649)	100.0 (657)	100.0 (2,391)	100.0 (68,344)	100.0 (70,736)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 2) 취업의사 및 장래희망 직종

이처럼 결혼이민자 다수는 자의보다 타의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이 취업의향을 갖고 있었다(<표 2-17>참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 82.2%, 2009년 85.7%가 취업 의향을 갖고 있었고, 남성이민자에 비해 더 높은 취업의지를 나타내었다.

&lt;표 2-17&gt;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의향 있음	77.8 (7)	82.3 (567)	82.2 (574)	72.0 (1,805)	86.2 (59,926)	85.7 (61,727)
의향 없음	22.2 (2)	17.7 (122)	17.8 (124)	28.0 ( 702)	13.8 ( 9,594)	14.3 (10,300)
합계	100.0 (9)	100.0 (689)	100.0 (698)	100.0 (2,507)	100.0 (69,520)	100.0 (72,027)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향후 취업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직종은 <표 2-18>과같이 전문준전문직과 자영업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미취업 결혼이민자 중 20.7%는 전문준전문직을, 19%는 자영업을 희망하였다. 또한 서비스직과 사무직, 공장·육체노동 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자도 각각 13%, 14.3%, 11.6%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1.2%로 매우 낮았다. 다른 한편, 성별 취업 희망 직종을 비교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문준전문직(20.2%), 자영업(17.7%), 사무직(14.6) 순으로 희망하였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자영업(31.6%), 전문준전문직(25.3%), 공장·육체노동(22.8%)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8> 결혼이민자의 장래 희망 직종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농어민	0.0( 0)	1.3( 10)	1.2( 10)
자영업	31.6( 25)	17.7(137)	19.0(162)
서비스	2.5( 2)	14.1(109)	13.0(111)
공장·육체노동	22.8( 18)	11.3( 81)	11.6( 99)
사무직	11.4( 9)	14.6(113)	14.3(122)
전문·준전문직	25.3( 20)	20.2(156)	20.7(176)
기타	6.3( 5)	22.6(167)	20.2(172)
합계	100.0( 79)	100.0(773)	100.0(852)

자료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3) 취업지원 요구 사항

미취업 결혼이민자가 취업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9>에 의하면, 일자리 알선을 요구하는 결혼이민자가 2006년 39.9%, 2009년 30.1%로 가장 높았고, 이는 당해연도 모두 남성이민자가 여성이민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양육이나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가 2006년과 2009년 각각 24.5%와 2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이민자도 18.3%를 차지하였고,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결혼이민자가 13.7%를 차지하였다.

&lt;표 2-19&gt;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조사결과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일자리 알선	60.0 ( 6)	39.6 (259)	39.9 (265)	46.4 (785)	29.6 (16,946)	30.1 (17,74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0.0 ( 0)	24.9 (163)	24.5 (163)	9.3 (157)	22.9 (13,110)	22.5 (13,262)
한국어교육	30.0 ( 3)	13.1 ( 86)	13.4 ( 89)	13.3 (225)	18.4 (10,534)	18.3 (10,787)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0.0 ( 0)	12.4 ( 81)	12.2 ( 81)	1.0 ( 17)	6.4 (3,664)	6.3 ( 3,713)
직업교육	10.0 ( 1)	5.8 ( 38)	5.9 ( 39)	9.1 (154)	14.1 (8,072)	13.7 ( 8,075)
도움 필요 없음/기타	0.0 ( 0)	4.1 ( 27)	4.1 ( 27)	20.9 (354)	8.6 (4,932)	9.1 ( 5,364)
합계)	100.0 (10)	100.0 (654)	100.0 (664)	100.0 (1,692)	100.0 (57,251)	100.0 (58,943)

자료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직업훈련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20>과 같이 어학, 컴퓨터정보통신, 음식 영역에 대한 요구가 1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3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통신이 15.2%, 음식이 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용·피부에 대한 지원 요구가 9.2%, 운전면허 7.8%, 의복 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남성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자동차정바기계수리(16.5%), 컴퓨터정보통신(16.2%), 운전면허(11.5%), 건설(8.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어교육(35.5%)을 비롯하여 컴퓨터정보통신(15.1%), 음식(13.2%), 미용·피부(9.7%), 운전면허(7.6%), 의복(6.5%)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표 2-20> 결혼이민자의 향후 직업훈련 요구영역

(단위: %, 명)

구분	2009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전체
어학	30.8(1,583)	35.5(29,656)	35.2(31,215)
컴퓨터/정보통신	16.2( 832)	15.1(12,614)	15.2(13,479)
자동차정비/기계수리	16.5( 848)	0.4( 334)	1.4( 1,242)
의복	0.9( 46)	6.5( 5,430)	6.2( 5,498)
건설	8.5( 437)	0.2( 167)	0.7( 521)
농어업/원예	1.6( 82)	0.8( 668)	0.9( 798)
음식	5.8( 298)	13.2(11,027)	12.8(11,351)
보육	0.6( 31)	3.3( 2,757)	3.2( 2,838)
간병/간호	0.3( 15)	3.0( 2,056)	2.8(2,483)
가사도우미	0.0( 0)	0.9( 752)	0.8( 709)
미용/피부	0.9( 46)	9.7( 8,103)	9.2( 8,158)
운전면허	11.5( 591)	7.6( 6,349)	7.8( 6,917)
기타	6.2( 319)	3.7( 3,091)	3.9(3,458)
합계	100.0(5,138)	100.0(83,539)	100.0(88,677)

자료 : 김승권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0.

4) 창업의사 및 희망 분야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표 2-21>에 의하면,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77.6%로 높았고, 특히 중국 한족과 태국 국적의 이민자가 각각 86.4%와 87.5%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도 76.7%,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도 66.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창업희망 비율이 48.8%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lt;표 2-21&gt;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제조업	도소 매업	숙박업	요식업	(어)학원	인터넷쇼 핑몰	기타	사례수
중국 조선족	9.1	21.2	3.0	33.3	30.3	-	3.0	33
중국 한족	7.5	30.2	4.4	32.1	32.1	3.8	2.5	159
베트남	14.8	36.7	1.6	7.8	7.8	5.5	2.3	128
일본	-	20.0	5.0	20.0	20.0	15.0	5.0	20
필리핀	3.8	42.3	-	19.2	19.2	3.8	3.8	26
몽골	-	57.1	-	7.1	7.1	-	-	14
태국	-	61.9	4.8	14.3	14.3	-	-	21
전체	8.7	34.4	3.0	20.9	20.9	4.2	2.5	401

자료: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지 국적별로 분석하면 <표 2-22>와 같다. 먼저 도소매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요식업과 (어)학원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민자가 동일하게 20.9%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제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8.8%를 차지하였다.

출신국기에 따라 창업 희망 분야에 차이를 보이는데, 도소매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태국 국적의 이민자가 61.9%, 몽골 국적 이민자가 57.1%, 필리핀 국적 이민자 42.3%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 조선족이나 일본 국적의 이민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식업의 경우는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이 비슷하게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본과 필리핀 출신 이민자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어)학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중국 조선족과 한족을 비롯하여 일본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가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일본 출신 이민자가 15.0%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분야의 경우는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가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6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표 2-2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희망 창업 분야

(단위: %, 명)

구분	희망 여부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중국 조선족	76.7	23.3	43
중국 한족	86.4	13.6	184
베트남	78.5	21.5	163
일본	48.8	51.2	41
필리핀	63.4	36.6	41
몽골	66.7	33.3	21
태국	87.5	12.5	24
전체	77.6	22.4	517

자료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1. 중앙부처 정책현황
2. 지자체 정책현황
3. 소결





## 1. 중앙부처 정책현황

지금까지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이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 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 부처별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은 2010년~2012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어 소개되는 각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은 주로 2009년 추진된 사업과 2010년에 계획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몇 년간 수행해 온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 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에 속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7년 126,955명에서 2008년 144,385명, 2009년에는 167,09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21.3%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다수가 국내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다. 2009년 현재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는 72.8%에 달하나 직업훈련 경험자는 10.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2009, 복건복지부).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①열악한 취업여건, ②직업훈련의 취업연계 미흡, ③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부족, ④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는 현 실태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2010~2012)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적합직종 발굴	노동부·여가부	10~12년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여가부·교육부·문화부	10~12년
	공공부분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 공공부분 취업확대	행안부·노동부	10~12년
		- 디딤돌 일자리 제공	노동부	10~12년
		-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여가부	10~12년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취업희망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관리	- 결혼이민자 DB 구축	노동부	10년
		- 국적취득시 신분 연계	행안부	10년
	결혼이민자 특화서비스 개발	- 다문화 일자리 축제	노동부	10~12년
		-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	10~12년
		- 채용장려금 지원	노동부	10~12년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노동부	10~12년
		-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 확대	노동부	10~12년
3.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 독자반 편성	노동부·여가부	10~12년
		- 직업능력개발계좌 활용	노동부	10~12년
		- 영농교육 실시	농식품부	10~12년
	직업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	- 국가자격 검정시험 특례	노동부·경찰청	10~12년
		- 훈련기관 인센티브 부여	노동부	11년
4.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취업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 공무원 및 사업주	행안부·노동부	10~12년
		- 결혼이민자	법무부·행안부·노동부·여가부	10~12년
		- 배우자 및 가족	여가부	10~12년
	민간부분과 네트워크 형성	-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노동부	10~12년
		-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	10~12년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2010.

## 나. 노동부

타 부처에 우선하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노동부는 2007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1)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 통역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혹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취업상담, 고용지원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총 103개 사업 중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YWCA의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강화 프로그램(안산),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사업(전주), 국제결혼이주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청주) 등 3건에 불과하였다.

이 외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생활상담 사업 등이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업들이 주로 이주노동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과 고용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직업훈련 서비스

현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직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거주

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외국인인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 2천여명(전체의 71.1%, 여성이 88.4%)으로 대다수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2009년 8월 법개정을 통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실업자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과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3) 구직 등록기간 운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구직 등록기간을 운영하였다. 2010년 3월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 등록기간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알선,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았고, 국비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직종을 감안하여 6개 직종별 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공예사랑협회)와 공동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한국YWCA, 새마을중앙연수원 등에 배부하여 구직등록을 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여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별도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4) 디딤돌 일자리 사업

금년부터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디딤돌 일자리<sup>4)</sup>’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

4) 디딤돌 일자리란 일명‘경과적 일자리’로도 불리우며, 외국에서는‘transitional job’이라 명명됨.

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디딤돌 일자리가 종료되면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가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고용지원센터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취업상담 후 할 수 있다.

디딤돌일자리 제공에 해당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고령자인재은행·시니어클럽·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직업훈련법인,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시설,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초·중·고교,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한정되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교육·훈련시키는 비용으로 1인당 월10만원(주 35시간 근무, 월 8시간 교육·훈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 5)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2010년 4월부터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장려수당, 잡콜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 취업성공패키지

1:1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 계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 중 18~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심층상담(1단계), 의욕·능력증진(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 과정을 1:1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한 사례로서 노동부 산하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부터 일자리 취업까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결혼

이민여성을 위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심리안정, 구직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모든 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단계만 진행하게 된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4일간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무료로 제공(아주대 한국어학당 위탁 교육 예정)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1단계 : 개별상담 및 취업후견인 지정, 2단계 : 한국어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직업훈련·디딤돌일자리 참여 등, 3단계 : 집중적인 취업알선(동행면접 병행)으로 이루어진다.

#### 나) 취업장려수당

중소기업의<sup>5)</sup> '빈 일자리<sup>5)</sup>'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제공한다. 구직자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빈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 다) 잡콜서비스

청소, 경비, 주방보조, 배달, 세차 등의 일자리를 전화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소외계층이 전화 한 통화로 쉽고 간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Job Call, 1544-1919)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역 8개 직종 일자리에 대해 우선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상점판매원, 신문·우유 등 배달원, 주차관리원, 세차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바로 전화로 안내해 준다.

---

5)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전체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자리로서, 구인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 미만이거나, 위크넷에 올라 온 해당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를 말함(유흥업소, 사행행위 일자리,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

#### 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를 비롯하여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 취업 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며 1년간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한다.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한다.

지원 대상 훈련과정은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중에서 선택하며, 여성의 경우 미용, 컴퓨터, 요리, 전통가구제작, 생활가구 제작, 도배 등의 훈련내용으로 구성된다.

#### 7) 외국인고용허가제 전담창구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채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2005년 9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상담 또는 취업알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소재 64개 고용안정센터에 전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및 임금·산재·근로계약·구제절차 등의 노동법과 금융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 8) 새일센터 운영

지역의 일부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다. 전

국 총 50개 센터 중 울산, 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 여성문화회관에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문화 적응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가계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중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사를 집으로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 9) 외국어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그동안 한글로만 출제되던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 시험이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어로도 치러진다.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공되던 운전면허시험이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로도 제작돼 제공될 예정이다.

## 다. 여성가족부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2010년 3월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추진했던 사업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공포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하였다. 2008년 10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가족역량강화기'에서 결혼이민자 경제자립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 및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역량강화기에 취업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실시,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 다문화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도록 연계 지원,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하여 지역교육청과 연계, 보



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일자리 제공 가능한 지역의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 향상교육, 운전면허 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 및 원어민 강사 양성 등)을 운영하고, 해당지역의 일자리 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대부분 창업보다는 취업지원 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취업직종으로는 산모도우미,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네일아트, 요리사, 통번역사, 공예품, 동화구연, 옷수선사, 이·미용,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홈패션, 마사지사 등이며, 창업직종으로는 제과제빵, 샌드위치 및 반찬가게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 취·창업을 위한 기초지원은 직업기초 소양교육, 컴퓨터교육, 운전면허, 한글자격증 과정 등이 해당된다.

2010년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YWCA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여성이 많이 모여 사는 울산, 진주, 순천 등 8개 지역에서 추진되며 바리스타, 의류수선사, 이미용원 등 8개 직종의 일자리가 지원된다. 2009년 여성부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를 위해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여성단체 등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5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미용, 병원 코디네이터, 농업 취·창업, 생산관리 등 직무보수교육과 취업상담을 실시 중이다. 결혼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장에는 한 달에 50만원씩 8개월간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3) 통·번역 전문인력 및 다문화강사 양성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

업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과 적응지원의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중앙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통·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유치원·초등학교의 알림장 번역, 학교상담 시 통역 파견, 기타 위기상황 발생 시 전화·이메일 통·번역 업무처리 등이다. 이 외, 통·번역 서비스 자조모임이 운영되는데,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를 양성하고,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법률지원 및 가사도우미 지원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에 능숙하고 소정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다문화교실 강사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라. 농림수산식품부

### 1) 이주 여성농업인 1:1 맞춤형 영농교육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농업인의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합과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계획에 따라 2008년 ‘이주 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일반, 기초영농, 농기계 사용,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여성농업인을 활용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자에게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하여 1:1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여성 농

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 2)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

본 사업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을 우수한 농업 인력자원으로 육성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및 농촌경제 참여활동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농촌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농촌생활 기초교육, 농기계 사용법을 비롯하여 지역 특산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및 창업연계 등 영농컨설팅을 통하여 전문 농업 인력 육성을 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자조모임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한 농촌정착 및 영농자활 의지 고취를 실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이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20년까지 여성결혼이민자 1만명을 농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2010년 발표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농촌의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농의지는 있지만 기반이 취약한 이주 여성 농업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 등 농업 기자재와 시설을 임대해 기반을 갖추도록 돕고, 이민자 모국의 음식, 문화 등 다문화 자원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병행하며, 이들 가정의 자녀에게 영농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차세대 영농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행정안전부

### 1) 희망근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에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펼치고 있다. 결혼이민자

## 60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를 위한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문화교육, 취미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사업과 더불어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학습방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가이드, 외국인 민원안내, 홈페이지 및 동화책 번역 등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인턴 및 고용서비스 인턴 등으로 채용하여 저소득층 영어학습, 외국인 업무 등에 활용한다. 2010년 4월말 현재 376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였으며, 79명이 행정인턴 및 고용서비스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 2) 국적취득 시 신분연계

국적 취득 전의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 취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주민등록본이 발급되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은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해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지도록 하는 방침을 구상중이다.

국적취득 전후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등 수급권 보호를 추진한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던 불편도 향후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다.

### 3) 공무원 및 사업주 대상 교육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결혼이민자 취업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다문화 42개 과정에 2,755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 4) 본국 일시 출국허가 제도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재입국 걱정 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창업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며,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는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바. 기타 부처

이 외,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처로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들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연간 4천명 내외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교육을 수행할 때 한국직장문화 및 취업지원 대책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본 사업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행안부, 노동부, 여가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강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에 능숙하고 소정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을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초등학교에 다문화교실 강사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에서 일일교사로 해당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갖게 하는 이중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2. 지자체 정책현황

### 가. 개요 및 특징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관,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의 민간기관도 단위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오히려 다양한 정책서비

스 제공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중 '가족역량 강화기'에 초점을 두고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다문화 강사 및 원어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에는 경제적 자립과 취업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16개 시·도에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과 2010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을 포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나. 시·도별 정책 및 사업현황

### 1)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특히 공공부문 취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어 중급이상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적성진단, 상담 및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위한 직종개발 등 시범사업을 권역별로 4개소에 실시하였다.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 결혼이민자 여성다문화강사를 포함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한울타리 플랜'의 4개 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채택하고 취·창업 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취·창업 교육관련 90개 기관에서 지난 3년간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하고 있는 기관은 16.2%에 불과하며, 교육 수료율은 97.6%로 매우 높았으나 취업률은 18.7%에 그쳐 저조하다. 한편, 일반여성 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한 경우는 14.5%로 매우 낮으며, 교육 수수료율은 74.5%, 취업률은 19.7%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내용은 정보화교육,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요리, 제과제빵, 통·번역, 바리스타 등이며, 기초적인 컴퓨터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미흡한 수준이다.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잡(job)자 날자’사업은 이미용전문가 및 다문화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 2) 경기도

경기도는 2006년 8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직무능력 및 희망직종 파악을 통한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친화적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교육지도사, 보육교사 등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기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2009년 영어독서지도사, 조리보조원, 네일아트사,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2010년에는 봉제전문가 양성과정을 추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 적응과 취업계획, 취업지원 교육 및 취업알선 제공을 위한‘월드맘 도전 프로젝트’사업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을 컴퓨터교실,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취업상담 및 연계, 원어민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 3)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자가 1만명을 넘기면서 글로벌 인천을 지향하는 시책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 4개소에서 7

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도입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인고용지원센터가 "취업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현재 시행중인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인천남구 새마을회와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한국 직장문화의 이해, 취업상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 4)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종합고용센터는 2009년 일자리희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주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외부인사의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기업체를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한편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보유능력과 장점확인,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 실제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자활사업단의 창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주부들로 자활사업단을 구성,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남은 밥을 활용하여 만든 누룽지와 식혜 등의 가공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 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2010년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창업



등 5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WINWIN쿠키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여성회관에서 결혼이민자 취·창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회관수강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창업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돕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햇병아리 창업가게'를 여성회관 로비에 운영하여, 수강생의 작품으로 목공예, 누비, 홈패션, 퀼트 등 저렴한 생활소품에서 명품선물까지 다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교육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사 양성사업을 실시하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는 여성회관과 종합복지관에서는 한국어 교육 실시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이 대구 달서구에서는 희망근로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동화 읽어주는 무지개 엄마, 다문화서포터즈, 다문화홍보교사, 다문화시설인력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이다. 2010년 4월에는 결혼이민자 취업 위한 정보화 자격증(컴퓨터 인터넷 기초 및 활용, 한글 익히기, 파워포인트 등) 취득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9월에서 2010년 1월까지 결혼이민자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리더 스카카데미"를 운영하였는데, 취업 준비기, 취업능력 향상기, 취업도전기 3단계의 단계별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능력 중급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3급, 운전면허시험 필기, 기초소양교육(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직장예절 교육 등) 등이 이루어진다.

### 7)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파견'을 들 수 있는데, 호남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영어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강사료는 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파견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강사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 동구에서는 2009~2010년 아시아음식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시아음식 전문가과정 입학식을 개최하고 3개월간 인도태국베트남 음식, 필리핀일본중국음식, 한국 전통음식 과정 등 3개 과정에 40명씩 120명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특화거리인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저소득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취업 및 자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8) 울산광역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활용하여 각 나라별 문화, 풍습, 예절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유치원, 학교, 기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밝은미래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 쉼터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구분 모집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여성이 운영하는 '다(茶)드림 카페'가 개점하였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북구지역 6명의 결혼이민여성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개점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다.

## 9) 충청남도

2009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대부분이며, 취업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으로는 운전면허 취득, 한국어자격증, 요양보호사, 조리사자격증, 미용교육, 홈페이지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0 다문화어울림 사업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지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요리강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 청양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우수사례로 대표되고 있는데, 청양군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특수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10) 충청북도

충북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로 여성결혼이민자 식당을 개소하여 운영하며, 청주시는 한국어 교육, 취·창업 분야 직업기초소양교육,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직업연계, 공동창업 지원(뚝다무지개 5개 사업단), 통번역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미니어처 만들기교육, 컴퓨터 교육, 운전면허증 지원사업이 수행 중에 있으며, 옥천군은 한국어학당에서 경제자활을 위해 공동체(지구촌두레)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 두레사업은 콩과 매실 등으로 매실청과 매실된장 등을 만들어 파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며, 비즈공예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상설작업장을 마련해 소득 증진에 힘쓰고 있다.

## 11) 전라남도

노인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2009년 5월에 개원한 군립노인병원

에 지역 결혼이주 여성들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꾼으로서 이주 여성들의 노동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곡성군은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의 교육·정책·취업 등 문화와 복지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개발과정에서 언어별 결혼이민자 대표들을 직접 참여시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적 언어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영광군지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정착 프로그램 외에 2008년 2월부터 특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 내 기업 단체와 연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2009년 30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지역 특산물 만들기 등의 사업을 개발해 취업인수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영광군청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관내 기업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순천 YWCA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사업단'을 발족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여 전문미용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신안군은 유능한 국제결혼 여성을 농어촌 학생의 외국어 향상을 위한 특별교사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산하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사업이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8개월간 무료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병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위문 및 통역지원, 각종 국제행사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2) 전라북도

2009년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기회가 제한적인 군 단위 전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농업관련 교육 및 영농 후견인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타시도에 비하여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문화 적응교육과 생활농업기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주여성 영농기술 교육은 7개 센터(전주, 김제 제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가운데 72명의 통·번역사를 양성하여 배치한 바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활근

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50~60만원의 급료를 지원하였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결혼이민자를 통역요원으로 양성하여 70명을 지역센터의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지역센터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하고 14개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였다. 결혼이민자를 영어보조교사 채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고학력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우수자를 외국어보조교사로 양성, 방과 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였다. 장수군교육청에 17명의 취업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 7명이 노동부 전주지청에 취업하였으며 1명에게는 취업 장려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기특강도 진행된 바 있다.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필리핀에 수출용 한국어 교육교재를 따갈로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펼쳐 이주여성 4명이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군산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과 자동차학원 등에 중국·베트남·필리핀어 구사자 등 전문 통역요원을 배치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에도 도움을 주는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다.

### 13)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정이 2009년 4월 3일로 비교적 늦은 편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미약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컴퓨터 실무과정 개설하고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운영하여 외국어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이중 언어 강사로 파견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취업 및 정보화 교육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서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취업기회를 주는 한편, 통·번역 인력으로 활용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한림성심대학 다문화연구소와 함께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영어 및 일본어 외에 중국어 분야로 확대하였다. 한편 2010년 3월부터 양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컴퓨터 자격증반으로 정보자격기술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홍천여고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14)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 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제공 및 고용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과 '방과 후 원어민 교사 양성' 사업을 통해 능동적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가 뛰어난 여성결혼이민자를 선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수기법을 교육한 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외국어 강사로 파견하는 원어민 교사 양성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국제회의 시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사업도 결혼이민여성으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및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천시의 경우 도비와 여성발전기금을 합하여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피부관리 자격증반(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을 개설하여 자격증 취득 시까지 이론과 실기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실시하여 호평을 얻고 있다. 피부전문학원과 4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20명에 대해 취업과 창업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 15)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10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친화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강사 66개, 방문교육지도사 20개, 다문화외국어강사 50개, 통번역사 17개, 등하교길 도우미 사업 10개, 행정인턴 및 인턴사원 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100명에게 취업교육 실시 후 요양보호사, 제과제빵사, 미용관리사, 바리스타 등으로 취업하게 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여

성 전문 취업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형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하여 취업설계, 취업교육, 일자리 연계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전문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내거주 2년 이상,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등 16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에게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sup>6)</sup>의 전문상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외,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 및 대학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등 학원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대학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영농기술 직업교육 실시 및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기반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농지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산시 고용지원센터는 '함께하는 취업지원 체감서비스'를 실시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구인업체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구인 업체를 방문하여 면접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고용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현지 관광가이드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산업정보대학에 위탁해 제주 관광가이드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가이드 양성교육은 제주 문화 및 제주인의 정서배우기를 비롯해 제주 각 지역의 전설과 고유 풍습학습, 모국어로 제주관광지도 작성 및 제주 관련 자료집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제주이민센터에서는 취·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제주 지역 여성들의 취업난 극복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24개 읍·면·동

6)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자국 출신의 전문 상담사와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임.

주민자치센터 등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설계사가 파견되어 구인·구직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등 취업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 3. 소결

이상에서 중앙정부와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았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각 부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의 3개년 계획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최근 2~3년 정도의 짧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향후의 발전적 성과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며 소결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횡적·종적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직종 발굴, 다문화강사 양성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은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3개 부처 간의 협력 부족으로 사업방향과 내용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다. 부처별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지 모호한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 간 상호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부로의 명확한 서비스 전달체계 하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기획이 이루어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차원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별로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의 관심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수가 많고 지역적 관심과 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에 밀착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매우 복잡하며 관련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도 심하다. 이처럼 인력과 인프라 및 예산의 확보를 비롯하여 사업운영 측면에서의 한계는 지자체별 지원서비스 편차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취·창업 정책 사업이 몇 가지 특화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지원 교육 및 사업의 대다수가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강사 등 소수 직종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요구를 반영하여 산모도우미, 의류수선사, 계약직 공무원,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지역특산물 제조사 등 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발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학력이나 연령, 경력, 결혼과정, 거주지역 등에 있어 국적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동질집단으로 보아 개별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 개발이 미흡하였다. 최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점차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단계별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종에 상관없는 취업알선이 아니라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직업적 강점이나 전문성 및 결혼 전 직업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단기적인 사업이 대다수이며, 일회적인 행사성의 프로그램도 있다. 직업훈련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하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육아문제의 해결과 배우자 및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을 갖추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사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2.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교육프로그램 예시



## 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 가.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발굴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선정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실제 사업으로 실행된 결혼이민자 직종을 심층면접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여 선정하였다. 두 번째 경로는 경력단절 여성 유망직종 가운데서 선정하였고, 세 번째 경로는 아직 사업으로 실행된 바는 없으나 결혼이민자 직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직종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정기준은 <표 4-1>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가지의 기준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진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층위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취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당장에 취업할 수 없더라도 일정정도의 교육훈련을 통해 소위 펜찮은 일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다음은 취업연계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으로 시장의 수요가 있어서 취업에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각종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수입은 차치하더라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4-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선정시 고려한 사항

-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자원을 활용한 직종
- 다양한 계층의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고려한 직종
- 구인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
- 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직종
- 비교적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종

### 1) 첫 번째 경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적합직종을 선정하는 데는 세가지 경로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주된 경로로 단계적으로 적합직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발굴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언론매체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직종관련 보도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검색과 취합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까지 나타난 모든 언론매체를 검색한 결과 총 57개의 결혼이민자 직종을 취합하였다(<표 4-2> 참조). 여기서 하나로 통일이 가능한 유사한 직종은 한가지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표 4-2> 언론매체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직종

중소기업 인턴, 전문헤어인력, 제조업 생산직 직원, 산모도우미, 통역지원사, 대기업 직원, 관공서 계약직 직원, 한지공예강사, 골프장 캐디, 다문화기획단원, 상담지원인력, 다국어언어홈페이지관리자, 상담원, 다문화교육강사, 어학교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이·미용사, 의류수선원, 포크아티스트, 다문화공방 운영 및 근무자, 다문화식당 운영자 및 직원,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중식조리사, 농장직원, 영농인, 웰니스테라피스트,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콜센터 직원,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공무원, 다문화레스토랑 운영자 및 직원, 다문화 마켓 운영자 및 직원, 통신사 외국인고객 대상 상담원, 다문화이해강사, 유아영어강사, 제과 제빵사, 외국어지도사, 카페 운영자 및 직원, 피부관리사, 영어 및 중국어 방문독서지도사, 간병인, 한자지도사, 영어지도사, 간호조무사, 급식도우미, 상담통역도우미, 공동작업장 운영자 및 직원, 도서정리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행정인턴, 다문화체험학교 직원, 리본공예가, 폴리머클레이아티스트, 아시아푸드전문점 운영자 및 직원 (이상 57개)

다음 단계로 1단계 취합결과 나타난 57개의 직종을 분석하고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판단할만한 가치가 있는 직종 20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수행 기관을 방문하고 사업담당자를 면접하였는데,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적합직종을 발굴하기 위한 자료수집 단계이다. 심층면접의 조사대상은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사업을 실시중인 기관의 사업담당자인데,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직종은 그 자신이 결혼이민자인 경우도 있었다.

심층면접의 조사내용은 실시중인 취업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 아이템 선정 배경, 운영의 애로사항, 향후 계획 그리고 벤치마킹 가능성, 취업연계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었다. 피면접자들은 전화를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대략 1~2시간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3>참조). 피면접자가 속한 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8건, 영남권 10건, 호남권 4건, 충청권 7건 및 강원권 1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직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관련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어 강사 4건, 영농인력과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료관광 콜센터 직원 포함) 각각 3건, 다문화 음식점, 산모도우미 2건이었다.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다문화 시설 인력지원, 다문화 카페, 공동작업장, 다문화 공방, 도서관 도서정리요원, 공공기관 인턴, 요양보호사산모도우미, 의류수선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피부관리사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피면접자의 성별은 여성 21명 남성 9명으로 여성이 월등하게 많았고, 근무경력은 많게는 30년에서 작게는 1년6개월까지 다양한 편이었다. 직위는 기관장, 사무국장, 담당직원, 공무원, 기업의 과장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층면접 결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6개의 직종은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4개의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 강사, 다국어 지도사, 한국어 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다문화 음식점, 다문화 카페, 다국어 콜센터 직원,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요양보호사, 의류수선사 그리고 영농인력이다.

&lt;표 4-3&gt; 심층면접 대상자(기관)의 일반적 특성

연번	관련직종	대상기관	직위	성별	근무경력
1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충남 N이주여성센터	센터장	여	11년
2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부산 P여성문화회관	담당 공무원	남	1년6월
3	의료관광 콜센터 직원	부산 P여성문화회관	담당 공무원	남	1년6월
4*	관광가이드	서울 M투어	관광가이드	여	5년
5	다문화강사	충북 C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여	2년
6	중국어 및 일본어강사	서울 C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여	1년6월
7	외국어강사	부산 P교육원	담당직원	여	2년
8	다국어 방문독서지도사	대구 D구청	공무원	여	10년
9	영어지도사, 한자지도사	경기 A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여	2년
10	다문화 시설 지원인력	대구 D구청	공무원	여	10년
11	다문화음식점 운영자(직원)	부산 R레스토랑	팀장	남	2년
12	다문화 음식점	충북 C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여	2년
13	다문화카페 운영자(직원)	부산 H카페	점장	여	2년
14*	공동작업장 운영자(직원)	충북 A작업장	대표	여	1년6월
15	다문화 공방 운영(직원)	서울 E공동체	대표	여	1년
16	도서정리요원	경기 G도서관	사서	여	13년
17	제조업(봉제) 생산직	전북 J시청	공무원	여	1년3월
18	제조업(원단) 생산직	경북 Y시청	담당 공무원	남	30년
19	제조업(봉제) 생산직	전북 J시 소재 (주)H사	과장	남	9년
20	제조업 생산직	전북 K시청	계장	남	20년
21	제조업 생산직	전북 K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여	5년
22	공공기관 인턴	경남 C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담당 직원	여	2년
23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충남 N이주여성센터	센터장	여	11년
24	산모도우미	서울 S구 보건소	팀장	여	5년
25	의류수선사	경남 J시 YWCA	팀장	여	5년
26	골프장 캐디	충북 C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남	15년
27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경기 W여성회관	팀장	여	3년
28	영농인	경기 I농협	과장	여	30년
29	영농인	강원 H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여	1년
30	영농인	충북 C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남	10년

주) \*는 피면접자가 결혼이민자인 경우임.



2) 두 번째 경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선정하기 위한 두 번째 경로는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지 않았으나 경력단절 여성유망직종으로 본 연구에서 정한 일부 기준에 부합하는 직종을 선정하는 것이다. 2008년 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유망직종을 발간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 유망직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은 POP강사, 도배사, 그리고 미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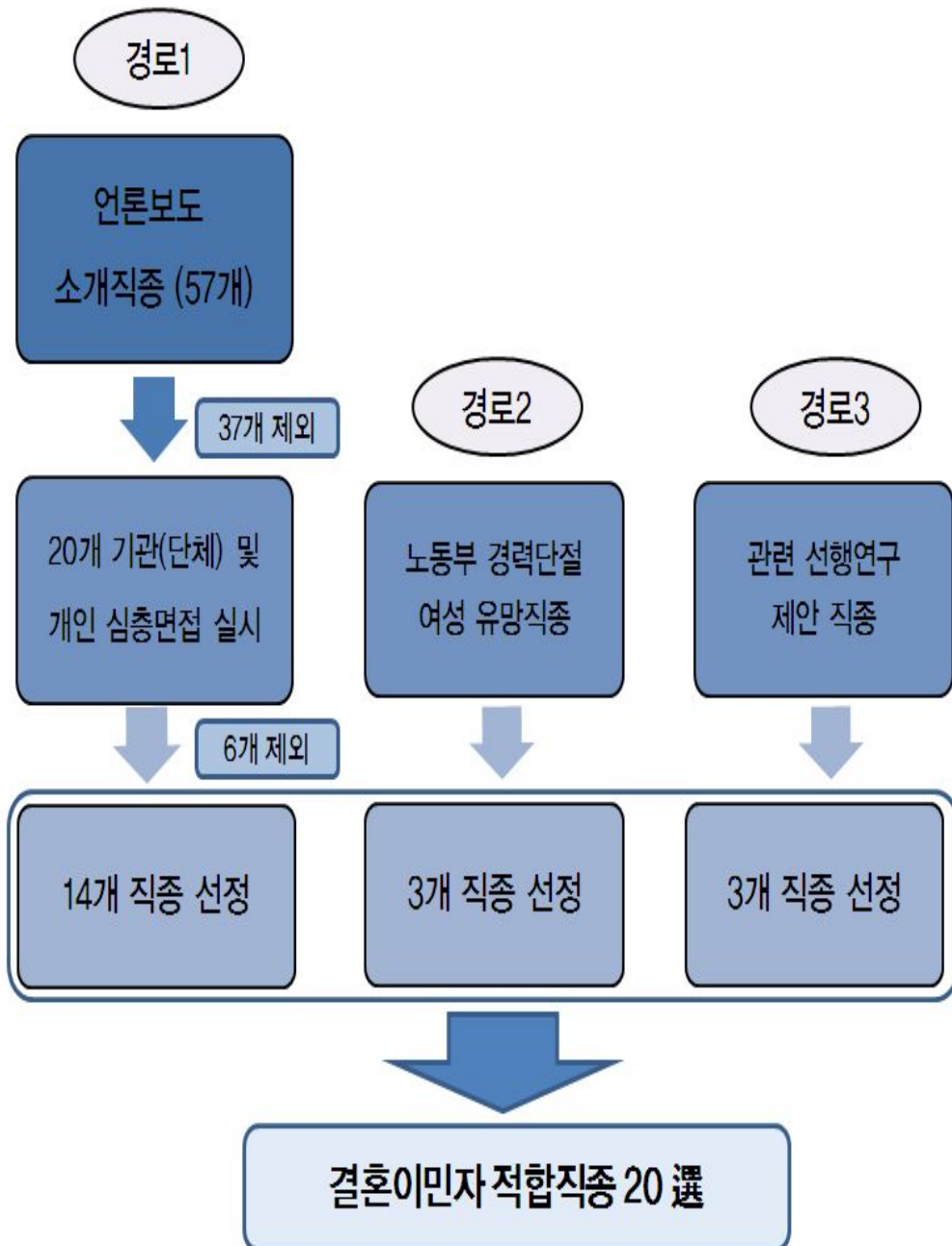
3) 세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즉 김영혜(2009)의 연구에서 제안된 10개의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중에서 사업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나 적합직종 선정기준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3가지의 직종을 선정하였다. 이 경로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은 관광가이드, 작업장 안전교육원, 그리고 대형마트 카트정리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발굴의 세 가지 경로별 선정 직종 현황이 <표 4-4>에 나타나 있다.

<표 4-4>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발굴 경로

분야	해당 직종(직업)
첫 번째 경로(14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강사, 외국어강사, 한국어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다문화음식점, 다문화 카페, 다국어 콜센터 직원,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요양보호사, 의류수선사, 영농인력
두 번째 경로(3개)	POP강사, 도배사, 미용사
세 번째 경로(3개)	관광가이드, 대형마트 카트정리원, 안전교육원,

<그림 4-1>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선정 과정



## 나.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20選

세가지 경로를 통해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최종 선정한 직종은 20가지이다. 20개 직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표 4-5>에 나타나있는데,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기관 지원인력분야,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 경력단절 여성 유망취업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의 6개 분야로 구성된다.

<표 4-5> 분야별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분야	해당 직종(직업)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한 분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 강사, 다국어 콜센터 직원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 음식점, 다문화 카페
다문화 기관 지원인력분야	한국어 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분야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대형마트 카트 정리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분야	요양보호사, pop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
기타 분야	영농인력

한편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20가지 직종의 가진 직업가치를 제시하였다. 직업가치란 한국인이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즉 직업생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일규 외(2003)의 연구결과 가장 중시되는 직업가치는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안정성, 능력발휘, 쾌적한 근무환경, 발전성, 사회적 인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회통계조사에서는 한국인이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이 안정성이고, 그 다음은 발전성, 수입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중시하는 직업가치로 나타난 보수를 비롯해서 안정성, 발전성의 세 가치를 직업가치 평가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어서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감

안하여 해당직업이 다문화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총 네 가지의 직업가치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20개 직업별로 직업가치를 판단하여 그 가치가 높으면 3점, 보통이면 2점, 낮으면 1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직업점수의 합산이 보통수준 이하인 8점 미만인 직업은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선정된 20가지 직종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 선정된 20가지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의 4가지 평가기준의 점수부여는 3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1)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한 분야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의 빈약함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며, 취업시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고용주들이 채용을 꺼려하는 면이 있다. 아울러 한국과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전반적인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 강점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 즉 본국 언어를 활용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이 아동영어지도사로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자원 중 언어를 활용한 직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 지도사의 5가지를 선정하였다.

#### 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 ① 선정배경

- 의료관광 분야는 2009년 1월 청와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이며, 2009년 5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이 발효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관광산업은 향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로 부상하고 있는데, 10만명의 해외

- 환자를 유치하면, 6,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9,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함.
- 따라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출신 결혼이민자들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할 수 있음. 의료관광에 있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자체인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사업대상으로 할 수 있음.

### ② 업무내용

- 해당 성형외과, 피부과 및 한의원내 근무하면서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에 온 고객(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병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실시함.
- 의료관광 타깃이 될 수 있는 본국의 의료관광이 가능한 직업계층 및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등 고객유치를 기획함.

### ③ 사업 대상자

- (한국여행 수요가 비교적 높은) 중국, 일본, 및 러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 본국에서 관광 및 의료 등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 직업 유경험자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 나) 관광가이드

### ① 선정배경

- 관광가이드에 있어서 유창한 본국어는 필수사항임. 한류 흐름을 타고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으므로, 유능한 관광가이드의 필요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함.

- 관광가이드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별 통계에 근거해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여 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케줄 잡기부터 관광명소 소개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관광가이드(도우미) 역할을 수행함.

### ② 업무내용

-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국어로 관광명소와 역사를 소개함.
- 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세부 여행 일정을 관리·조율함.

### ③ 사업 대상자

- 한국에 거주한지 비교적 오래 되어서 한국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
-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
- 보통수준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3)	안정성(3)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한국 문화재를 풍습이나 한국사람에 빗대어 중국말로 설명하는 거죠 수입이 한 달에 천만원도 넘어요 예전에 중국어강사할 때랑은 비교가 안되죠 힘들지만 돈이 되니까 좋아요 자격증 시험내용과 상관없이 고객 상대를 잘하는 게 필요해요. (사례번호 4)

## 다) 다문화강사

### ① 선정배경

- 다문화강사는 다양한 나라의 위치, 역사, 음식, 의복 및 기타 생활규범 등을 각종 시청각 자료나 소품을 이용하여 강의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함. 최근들어 각급 학교 특별활동, 방과후 교실, 공부방 및 복지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강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는 출신국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중 하나로 이를 선정함.
- 새롭게 시작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함. 특히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차세대 주역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
- 따라서 이들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을 배양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 다문화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국적별로 해당 문화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다문화강사의 양성이 필요함.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에 다문화담론을 끌어낸 당사자로 다문화강사에 가장 적합한 대상임.
- 양성교육 뿐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강사의 질을 통제하도록 함.

### ② 업무내용

-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함.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 기자재(민속품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국가의 역사, 풍습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소개함.

### ③ 사업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 본국어, 본국역사 등 관련분야 전공한 사람
- 보통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라) 작업장 안전교육요원

① 선정배경

-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실제로 마스크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의 협착·추락·전도 등 반복형사고에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새로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문제 등의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등장함.
- 그런데 작업장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외국출신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작업장 내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 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출신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따라서 다국어로 작업장 내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인력을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② 업무내용

- 안전교육요원은 단독으로 혹은 한국인 안전교육 요원과 함께 일하며 다국어 안전교육 혹은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함.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요원 내부에서도 업종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작업장을 방문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법이나 위험물 취급법 등 각종 작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련 정보를 통역·전달함.
- 그 밖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피신하는 법이나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보



여줄 수 있음.

### ③ 사업 대상자

- 능통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국적별 모집)
- 화학, 환경, 건설 등 관련 부문 전공자 및 본국에서 관련 업무 유경험자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 마) 다국어 지도사

### ① 선정배경

-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취업의 전형적인 예는 본국의 언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강사 활동임. 필리핀 여성의 경우는 영어지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임.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도 영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므로 다국어 지도사를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능력 이외에 한국어 의사소통수준이 높아야 하며,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도 필요함. 따라서 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언어 능력 이외에 학생을 통솔하는 법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할 것임.
- 개인적으로 학원강사, 독서지도사, 과외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취업연계 기관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투입될 수 있음.

### ② 업무내용

- 학생을 통솔하여 해당 언어를 강의함.
- 다양한 수업안의 개발함.

③ 사업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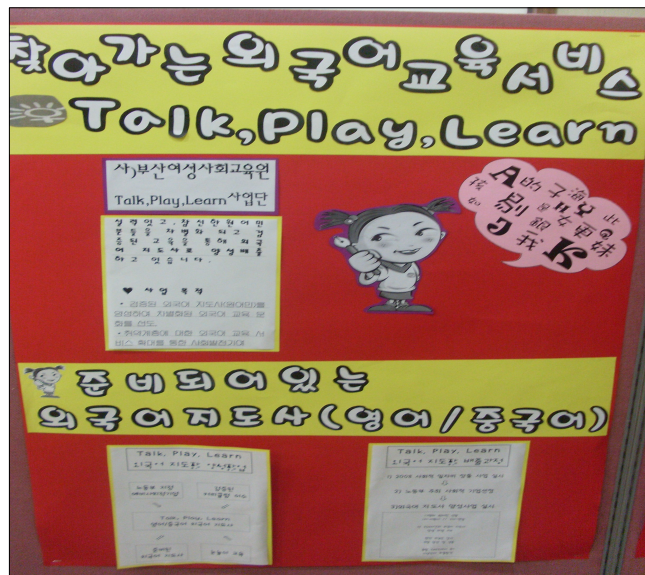
-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
- 한국어 수준이 높은 사람
- 언어 이외에도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어린이집에서 (결혼이민자 지도사들) 좋아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뭐랄까 영어는 잘하는데 그 이외에 아이들과 상대하는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애들을 귀락파락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번호 6)

<그림 4-1> 부산여성사회교육원에서 실시 중인 외국어교육지도자 과정에 관한 안내문



바) 다국어 콜센터 직원

① 선정배경

-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정보요구 및 상담전화 폭주로 다국어 콜센터 인력 증원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업무를 위해 다국어를 지원하는 콜센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콜센터가 필요한 상황임.
- 다국어 콜센터는 기능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 다문화 여성대상 전문상담을 실시하기도 함.
- 현재 다문화 의료관광, 외국인 대상 종합안내, 통신사 고객만족상담 등의 분야에서 다국어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콜센터에서 통역 및 상담을 제공할 다국어 구사가능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② 업무내용

- 행정·의료·복지정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함.
- 문의전화에 대해 해당 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함.

③ 사업 대상자

-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
-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
- 보통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그림 4-2>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결혼이민자의 모습



## 2)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자원 중에서 본국의 문화를 활용한 취업분야에는 본국 먹거리나 공예품을 활용한 창업 및 관련기관 취업이 있다. 베트남 출신 여성은 한식 조리보다는 베트남 음식 조리를 더 잘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사회도 다문화 물결을 타고 이국적인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베트남음식, 태국음식, 인도음식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 먹거리나 문화를 활용하여 창업이나 취업하는 것은 향후 유망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본국의 먹거리나 문화를 활용한 일자리는 주로 창업이 가능한 직종인데,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보건복지부, 2009: 김영혜 외,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창업은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가운데 다문화자원 중 언어에 이어 문화자원을 활용한 분

야로 다문화 음식점과 다문화 카페를 선정하였다.

#### 가) 다문화 음식점

##### ① 선정배경

- 최근 들어 다문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임. 일본음식과 인도음식은 이미 대중화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음식, 태국음식, 그리고 몽골음식 등도 일부 매니아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결혼이민자가 가진 솜씨로 이국적인 다문화 음식을 선보임으로써 높은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런데 음식솜씨 만으로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다문화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다문화 음식 개발이외에도 음식점 서비스 교육 및 경영관련 교육이 필요함.
- 음식솜씨는 지역대학 식품영양학과나 조리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음식점을 직접 경영할 수도 있지만,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내 조리사나 서빙직원 등의 경험을 통해 단계적인 경영기술을 습득이 필요함.

##### ② 업무내용

- 음식점 소유주로서 다문화 음식점 경영함.
- 다문화 음식점의 조리인력이나 서빙인력으로 근무함.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음식점내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한국어 능력이 관건이 되므로, 한국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함. 특히 서빙인력의 경우는 높은 한국어 수준을 지닌 사람이어야 함,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이 분들 장점이 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하니깐 다 가정주부고 여자들이고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여자고 가정주부면 음식에 대해서는 뭐, 집에서 항상 하는 거고 또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분들 자기 나라 고유 음식을 만들면 참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템 자체가 쌀국수나 스파게티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음식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고 재밌어 하시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탕으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례번호 11)

<그림 4-3> 부산 다문화 음식점 내부 전경



나) 다문화 카페

① 선정배경

- 다문화 카페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마실거리를 판다는 의미보다는 문화를 판다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히 이국적인 마실거리나 과자를 판매한다면 일반 카페와 크게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임.
- 카페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그 자신이 다문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다문화 카페는 지역사회의 다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운영의 다각화와 사업홍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카페’를 운영 것도 방안임. 즉 희망하는 기관이나 학교로 가서 다문화 관련 음악연주, 간단한 전시판매, 그리고 마실거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음.

② 업무내용

- 다문화 카페를 경영하거나 혹은 조리인력 및 서빙인력으로 근무함.
- 판매의 주된 품목은 마실거리나 간단한 과자임.
- 카페 한쪽에 다문화 체험홍보와 소개 코너를 만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림.

③ 사업 대상자

- 다양한 다문화관련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 교육수준과 무관함.
- 카페 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한국어 능력이 관건이 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3)
-------	--------	--------	----------

이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임금이 조금 작아도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4대 보험 혜택 같은 것도 다 받으면서 자기가 또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일만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와서 내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말 조금 못하지만, 베트남 문화에 대해 조금 알려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성취감도 있을 거고 더 한국에 애착심도 있을 거고. (사례번호 13)

저희는 카페가 힘든 일 보다는 머리 쓰는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카페지기는 커피만 하는 거 아니고, 커피는 기본이에요. 다 메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자기 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알리려면은 태국 분은 태국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중략).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말을 안 했는데도 하고 있을 때. 그게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니까 그런 게 좋아요. (사례번호 13)



<그림 4-4> 부산 다문화 카페에서 수작업 중인 결혼이민자들과 전통 수공예품



### 3) 다문화관련 기관 지원인력 분야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지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정책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문화가 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다문화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숫자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관련 기관들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부터 원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설립되지 않

있지만,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설, 예컨대 각종 사회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다문화 업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기관 지원 인력분야의 직종들을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몇몇 연구결과에서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인 강사와 수강생들의 중간에서 이들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한국어 보조강사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혜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가운데 다문화관련 기관 지원인력 분야로 한국어 보조강사, 상담보조원, 그리고 산후도우미를 선정하였다.

#### 가) 한국어 보조강사

##### ① 선정배경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시 보다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해 본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음. 이들에게는 통역 및 교육 보조의 두 가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닐 것이 요구됨.
- 실제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09) 연구 결과, 일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출신 교육보조강사를 활용하여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음.

##### ② 업무내용

- 교육보조강사는 수강생, 교육강사 및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의 중간역할을 수행함.
- 한국어 및 취업교육에 같이 참여하여 수업 분위기를 익히고 수강생들과 소통하여 수강생 입장에서 이해가 힘든 수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교육강사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업내용 이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강사 및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함.

##### ③ 사업 대상자

- 능통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2)	다문화가치(3)
-------	--------	--------	----------

우리는 그 분 아니었으면 (수강생의) 어려움이 뭘지 몰랐을 겁니다. 그 분이 참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분에게 연락을 좀 해보려고요. 돈은 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효과는 있어서 저희기관은 하려고요. (사례번호 27)

#### 나) 상담보조원

##### ① 선정배경

- 결혼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각종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국제결혼은 해마다 이혼율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음.
-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가족상담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받을 때, 같은 국적 출신의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상담의 보조역할도 하게 하여 상담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음. 본국출신 상담보조원은 본국의 문화와 정서 부분에서 상담의뢰자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클 것임. 그러므로 통역을 물론이거니와 상담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이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는 가족상담 시에 상담보조원이 필요하지만, 향후 결혼이민자의 취업상담 시에도 상담보조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② 업무내용

- (가족)상담 시 통역 및 상담보조의 역할을 수행함.
- (취업)상담 시 통역 및 상담보조의 역할을 수행함.

### ③ 사업 대상자

- 본국어뿐 아니라 능통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 본국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2)	다문화가치(3)
-------	--------	--------	----------

#### 다) 산모도우미

##### ① 선정배경

-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출산하고 있고,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산모도우미가 필요함. 이때 자국출신 산모도우미가 보다 친근하게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들은 친정어머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연로한 경우가 많음.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2주에 150만원을 상회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고가임. 따라서 산후조리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결혼이민자 본국인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것을 제안함. 산모도우미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후에 국적별로 DB를 만들고, 이 후에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파견하도록 함. 보수교육 또한 산모도우미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함.

##### ② 업무내용

- 산모의 식사 준비, 수유 보조 등 돌봄을 수행함.
- 신생아를 전반적으로 관리함.
- 간단한 집안 청소를 수행함.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한국에서 출산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2)	다문화가치(3)
-------	--------	--------	----------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낯선데 와서 어린나이에 애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미역국 먹지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돼서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죠. 도우미 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받는 사람도 좋아하구요. (사례번호 24)

저는 방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생아를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김에 제가 가서 씻겼죠. 아기들은 자주 씻겨야 잘 자란다고 말해줬어요. 지금도 그애 가끔 봐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례번호 28)

## 4)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역할모델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혼이민자에게는 큰 자부심일 수 있고, 향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인턴이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결혼이민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계약직 공무원에서 다소 벗어나서 결혼이민자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한편 사기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다. 즉 이들이 큰

로자로 일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비록 이들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업이 책임지고 다문화 사회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심어주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이 부각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그리고 대형마트 카트 정리원을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중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분야로 선정하였다.

#### 가) 도서정리요원

##### ① 선정배경

-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임. 따라서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최근의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한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다문화관련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도서관 직원으로 다문화인력을 활용하는 것임. 즉 다문화 인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이 다문화를 선도를 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 결혼이민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핵심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에 취업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음. 또한 근무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도서관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음.
- 즉 다문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도서관에 다문화 인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에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도서관 도서정리요원을 선정함.

##### ② 업무내용

- 서지정리
- 기타 사서보조 업무

##### ③ 사업 대상자

-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
- 한국어 능력이 높은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2)	다문화가치(2)
-------	--------	--------	----------

#### 나) 제조업 생산직 취업

##### ① 선정배경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층위는 다양한데, 시간을 두고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소위 팬찮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일자리만 아니면 당장에 취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 됨.
-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지역사회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생산직 취업을 제안하고자 함. 지역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결혼이민자 또한 많으므로, 이들의 요구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함.
- 제조업 생산직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주, 영주, 김제시 등 몇몇 성공한 사례들이 있음. 특히 영주시의 인견업체 공단의 경우는 업체마다 사전에 필요인력을 요구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3년째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고용하고 있음.
- 심층면접에 의하면, 사업체에서는 외국출신자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육기관에서 직업소양교육 등을 통해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결혼이민자라는 특성상 취업자들의 사후관리 및 점검이 필요함. 즉 기업주와 취업한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② 업무내용

- 봉재, 전자 등 제조업체의 생산직 업무를 수행함.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보통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지닌 사람
- 해당기업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2)	다문화가치(2)
-------	--------	--------	----------

결혼이민자 취업직종을 생각했을 때, 저는 통역 번역 그런거는 사실 일이 있을 때나 좋지 대부분은 일이 없이 지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했어요. 사실 일이라는 게 대우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 화장품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우리 기관에서 책임지고 교육하겠다고 하고 일단 취업을 시켰어요.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것 같아요. (사례번호 22)

#### 다) 대형마트 쇼핑카트 정리원

##### ① 선정배경

-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대규모 유통업체의 업무의 경우, 어떤 일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임. 예컨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아닌 제품정리 및 카트기 정리 등의 일이 그러함.
- 이 일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창업하는 것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일 것임.

**② 업무내용**

- 대형 유통업체에서 카트기 정리, 진열대 제품 정리 등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수행함.

**③ 사업 대상자**

- 해당 유통업체가 위치한 지역 내 거주자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사람
- 교육수준과 무관함.
-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함.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2)	다문화가치(2)
-------	--------	--------	----------

5)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분야

결혼이민자들은 대다수가 결혼, 출산, 육아 등 경력단절된 여성이므로 이들이 가지는 취업에서의 어려움은 일반여성들이 가지는 취업에서의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인적자본이나 문화적인 요인 보다는 가족요인에 의해 취업유무가 결정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김영혜 외, 2009). 따라서 기 개발된 경력단절여성 취업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선별하였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직종이면서 결혼이민자에게도 유용한 직종으로 요양보호사, pop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그리고 미용사를

7) 현재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취업직종도 대다수는 경력단절 취업유망직종과 중복됨

선정하였다.

가) 요양보호사

① 선정배경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와 재가 대상자를 위한 간병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여성일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함.
- 현재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자격증이 주어짐. 이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중이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향후 노인인구가 더욱 늘어나면 취업에 더욱 유용한 자격증이 될 것으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선정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시부모가 연로한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면 자신의 시부모를 돌볼 때도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용함.

② 업무내용

-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 운동, 마사지, 식사수발, 그리고 대소변 관리 등 각종 노인 수발을 수행함.

③ 사업 대상자

-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교육수준과 무관함.
- 보통정도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2)	다문화가치(2)
-------	--------	--------	----------

외국인이라 꺼리시지 않나구요? 천만에요.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몰라요. 왜냐면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업무 외적인 걸로 분위기를 띄워주니까요. 요양보호사 실습마치고 나올 때 시설의 할머니들 우시더라구요. 서운하다구요. (사례번호 20)

## 나) POP강사

### ① 선정 배경

- 상품 판매를 위한 ‘글씨광고’ 를 의미하는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광고)는 기존의 경직된 인쇄매체를 탈피하여 가독성과 가시성이 높은 손글씨 광고가 유행하면서 초기에는 상업적인 용도의 손글씨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종이와 붓, 물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흥미롭고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생활 속의 POP로 확대되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응용하여 활용되고 있음.
-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사용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몰두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POP강사의 장점이 있음.

### ② 업무내용

- 매장홍보나 신상품소개, 백일 및 돌 기념보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 피켓과 벽보, 샌드위치 가게나 카페 등의 메뉴보드 등 주문에 따라 POP를 제작함.
-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창업이 가능함.

### ③ 사업 대상자

- 집중력을 발휘하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미적 감각을 갖춘 사람
- 유행이나 대중의 심리를 파악할 능력을 갖춘 사람

-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함.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2)	다문화가치(2)
-------	--------	--------	----------

다) 도배사

**① 선정배경**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결혼이민자 남편들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 문제가 제기되었음. 남편 들은 결혼당시부터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아예 일 자리를 잃은 경우도 많음.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 이에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으로 부부단위로 일할 수 있는 도배사를 선정하였음. 최근 실내인테 리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 도배주기가 짧아졌으므로 일감은 비교적 풍부한 편임. 힘쓰는 일에 서는 남자가 유리하지만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하는 마감처리과정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유 리해서 부부간에 같이 일한다면 상호보완이 될 수 있음.
- 도배사는 지물포를 창입해서 장판 끼는 일과 함께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 없이 프리 랜서로 도배만 전문적으로 하기도 함.

**② 업무내용**

- 아파트나 일반주택, 사무실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벽지를 선택하여 풀과 접착제로 벽지 를 바르는 일을 함.
- 도배지 고르기, 벽면 고르기, 벽지 자르기, 벽지에 풀칠하기, 그리고 바르게 붙이기 등 벽지를 바르는 일련의 업무로 이루어짐.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함.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경우는 남편이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음.)
- 업무의 특성상 기초체력이 필요함.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2)
-------	--------	--------	----------

#### 라) 의류수선사

##### ① 선정배경

- 최근 들어 경기회복을 예고하는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실정임.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으며, 고가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에 따라 창업시장에서도 수선(Reform)은 물론 수리(Repair), 재충전(Refill), 대여(Rental)의 이른바 ‘4R’ 사업아이템 열풍이 IMF 이후 또다시 불고 있음. 이 여파는 창업시장까지 미쳐 ‘리사이클’이 창업아이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음<sup>8)</sup>
- 의류수선업은 해진 옷을 수선해 입는 사람뿐 아니라 멋을 위해 옷을 개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광받는 아이템임. 이런 수요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수선교육비용 대부분을 지원하는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의류수선 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각종 취업육구 조사에서도 미싱 관련 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8) 헤럴드 경제 2010. 4.29일자

- 의류수선점을 창업할 수도 있지만, 점포 없이도 세탁소나 의류판매점과 계약하여 일감을 받아 일할 수 있음.

### ② 업무내용

- 현옷 혹은 새옷이나 의류관련 각종 소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가공함.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
- 어느 정도의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
-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2)	발전성(3)	다문화가치(2)
-------	--------	--------	----------

## 마) 미용사

### ① 선정배경

- 미용사는 미용업무에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직업임.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미용사는 전통적인 여성 유망직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역할이 변하고 있음. 머리손질의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수준에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실에 미용사로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정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쳐서 창업도 가능함.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그리고 네일아트 등과 같은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 있음.<sup>9)</sup>

- 미용사의 장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진 기술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임. 결혼이민자가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직업을 구한 후에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쓸 수 있다면 결혼이민자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 ② 업무내용

-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이미용 기구를 활용하여 염색, 펴머, 커트 등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함.
- 머리손질뿐 아니라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관련 업무도 할 수 있음.

##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서비스 정신을 갖춘 사람
- 어느 정도의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
-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3)	다문화가치(2)
-------	--------	--------	----------

## 6) 기타 분야

기타 분야로는 영농인력을 선정하였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역할은 향후 매우

9) 작년까지만 해도 미용사 자격증으로 피부관리샵 창업도 가능했었지만,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따로 분리되면서 세 종류에 관해서만 창업이 가능해짐.

커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촌지역의 남성들이 배우자로 결혼이민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젊은 인력으로서 향후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 영농인력

① 선정 배경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향후 우수한 영농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반 영농교육과 함께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을 특화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민자 본국의 농작물 재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음. 이 부분은 국가 간의 농산물 거래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② 업무내용

- 일반 농법과 지역 특산물 농법에 따라 농업을 수행함.
-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여 농업을 수행함

③ 사업 대상자

- 교육수준과 무관함.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가능함.

④ 직업가치 평가

보수(2)	안정성(3)	발전성(3)	다문화가치(2)
-------	--------	--------	----------



## 다.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취업연계 방안

### 1)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 강사, 안전교육요원, 그리고 다국어 지도사가 포함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인과 같이 개설되지 않고 반드시 결혼이민자 전문과정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안전교육원, 그리고 다국어 지도사이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관광가이드의 경우는 사설기관에서 개설하고 있고, 이 가운데 관광가이드는 전문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개설된 강좌는 많으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강사와 다국어 지도사의 공통점은 결혼이민자 지원기관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교육원은 현재 개설된 곳이 없다. 안전교육요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을 추진 중인 병원과 협약(MOU)을 맺어서 필요한 코디네이터 인원 수 만큼 양성하는 소위 맞춤형 방식으로 가야 하리라고 본다. 관광가이드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강사와 다국어 지도사는 광범위하게 개설되어 있고 활동하는 인력도 다수이다. 이 직종 성패의 관건은 지역 교육청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교류가 있는 지역(예컨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다국어 지도사나 다문화 강사의 시장이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 사례로 안산 모기관의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다 모아놓고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가진다. 그 자리에서 다국어 연극이나 샘플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기지역의 A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 :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표회 개최>

다년간 중국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대상 다국어지도사 교육을 실시중인 이 기관에서는 다국어지도사의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의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 이 발표회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축제로서의 의미도 가지지만, 그보다는 교육생들의 취업연계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더 중요한 취지임.

이 발표회에는 결혼이민자 취업에 관심있는 관계자들 이외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을 초대되어 진행됨. 또한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생들이 야외학습으로 참석하기도 함. 발표회의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중국어로 된 연극을 상연하거나, 필리핀 출신 교육생들이 영어로 요리교실을 진행하여 각자의 실력을 자랑함. 본 연구진의 참관 결과 이들의 연기수준은 매우 높아서 참석자의 호응이 매우 높음. 중국어 연극의 경우 참석 아동들의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 영어 요리교실은 연극자가 아동들에게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었음.

발표회 후에는 그 자리에서 구두로 혹은 서류상으로 다국어지도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집 원장들은 발표회 때 연극을 눈여겨 봐두었다가 연극이 만일 흥분놀부전이라면 ‘놀부부인역을 맡은 사람’ 혹은 ‘흥부역을 맡은 사람’ 이라고 다국어지도사를 낙점하고, 영어지도사의 경우는 요리교실의 ‘주방장 역을 맡은 사람’ 과 같은 식으로 발표회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일자리 제안을 함.

발표회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발표회 전 과정을 비디오로 작성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취업연계를 유도함.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많은 결혼이민자 다국어지도사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음. 이 행사는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음.

## 2)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자원 중에서 문화를 활용한 분야는 다문화 음식점과 다문화 카페가 있다. 이 두 가지 창업아이템은 주변의 지원없이 홀로 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데, 부산의 모 레스토랑의 경우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한 한국이 시장분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개는 시장에 곧바로 부딪치는 것 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의 교류체계를 통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받고,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lt;부산지역의 H다문화카페 사례 : 다양한 다문화컨텐츠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고용&gt;

부산지역에서 성업중인 이 다문화카페는 다양한 다문화컨텐츠를 활용하여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임. 이 다문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료와 쿠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 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음료수 기본요금에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언어체험(free talking)과 문화체험 즉 전통의상 및 전통놀이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공예품의 경우는 음료수 이외에 직접 제작하여 카페 안에서 판매하고 있음.

아울러 이 다문화카페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과 수익을 내고 있음. 찾아가는 다문화카페에서는 관내 각종 단체를 찾아가거나 대학의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함. 찾아가는 다문화카페에서는 본 카페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일종의 다문화 공연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9년 10명과 2010년 8명의 결혼이민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이 다문화카페는 향후 기업연계형으로 지역 내 큰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과 다문화카페서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3) 다문화 기관 지원인력 분야

다문화 기관 지원인력 분야에는 한국어 보조강사, 상담보조원, 그리고 산모도우미를 선정하였다. 이 분야는 관련 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먼저 한국어 보조강사의 경우는 한국어 교실에서 일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보조원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는데, 통번역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모도우미는 현재 YWCA등을 통해 산모도우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도우미 교육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교육 수료생 DB를 구축한 후에, 출산한 결혼이민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연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 4)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제안하는 직종은 도서정리요원이고, 사기업으로 제조업 생산직 취업과 대형마트 카트 정리원을 선정하였다. 도서정리요원의 경우는 도서관이 다문화사회를 함께 한다는 슬로건 하에 전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도서관에서 실시하기 쉽지 않다면 인근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인원의 120%를 교육하고 다수를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생산직은 기업의 구인난과 결혼이민자의 구직난, 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영주시의 사례는 좋은 교훈을 주는데, 인건공단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요구를 하면 그 수요를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능 인력은 별도의 교육보다는 직업소양 교육에 치중하고 단기간의 현장교육을 통해 성사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카트 정리원의 경우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와 결혼이민자 교육기관간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 기업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결혼이민자가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경북지역의 Y섬유단지 사례 : 저연령의 강점을 내세운 맞춤형 교육과 취업연계>

경북 Y지역의 섬유단지에는 현재 30개 기업 60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음. 몇 년 전부터 직물업계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직조종사자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기업운영상의 어려움이 되었음.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주들은 저연령의 결혼이민여성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됨. 이에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지차원에서 1개월 교육하고 6개월 인턴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2007년부터 실시중인 이 사업에는 해마다 15~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음.

교육과 취업연계 방식은 단지내 개별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인력수를 조사하는데, 비록 단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체 단지내 개별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두 합하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됨. 이렇게 기업의 수요가 정해지면 결혼이민자 대상 홍보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임.

사업시작 몇 해는 노동부 사업지원을 받았고, 금년부터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섬유단지내 기업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사업에 대한 기업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좋은 편이므로, 향후 집중적인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5)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 분야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 분야로는 요양보호사, POP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를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미용사는 협회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로 이론과 실습에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자격증을 획득하면 취업과 창업이 모두 가능해 힘든 만큼 보람이 있기도 하다. 자격증의 경우 필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특별조치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수료만 해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지역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자격취득 후에는 시설이나 재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시부모나 이웃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으로서 보험수가를 적용받기도 한다.

도배사는 도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개인의 능력이 좌우하는 직업이다. 도배사 교육은 남편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부단위교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족단위 취업이 가능한 직종으로 여겨진다.

의류수선사의 경우는 많은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하는 것이 안정적이므로, 세탁소나 의류전문점과의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상인협회와의 협약체결을 권장한다.

POP강사의 경우는 교육을 실시한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얻어서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는 계속적으로 감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기타 분야

공동작업장의 경우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기관 기념품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작업이 초기에는 필요하다.

## 2.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교육프로그램 예시

본 절에서는 앞서 선정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20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의 직종, 즉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도서관 도서정리요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를 제시하였다.

### 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은 많이 있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차별적이어야 한다. 즉 언어나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자를 위해 보다 특화된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교육목표

-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함.

#### 2) 교육대상

- (한국여행 수요가 비교적 높은) 중국, 일본, 및 러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
-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 본국에서 관광 및 의료 등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 직업 유경험자

#### 3) 프로그램 구성

- 총 200시간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은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 직업소양교육과정 36시간
  - 2단계 : 전문교육과정 116시간
  - 3단계 : 체험교육과정 48시간

120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 교육형식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이론 152시간, 실습 48시간



4) 과정별 내용구성

<표 4-6>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의 과정별 내용구성(200시간)

대분류	분류	단위과정	시간	
직업 소양교육 과정 (이론) :36시간	한국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 직장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의 조직문화	16	4
		- 근로계약에 대한 모든 것		4
		-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 임하는 법, 구직방법		8
	여성과 일에 대한 이해	- 직장여성의 가족관계 관리	12	4
		- 보육관련 지원 사항		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4
	사기진작	- 사기진작 프로그램 1	8	4
		- 사기진작 프로그램 2		4
	전문교육 과정 (이론) :116시간	한국의 의료 체계	- 한국의 병원, 병원인력,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12
-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 : 해외사례 포함			4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활동영역과 업무범위			4	
의료관광객 수속		- 공항업무, 호텔업무	8	4
		- 스케줄 관리		4
고객 상담기법 (입문)		- 고객응대의 표준화	40	8
		- 진료상품 소개 : 예진표 및 문진리스트 활용		8
		- 언어적 비언어적 상담스킬 1		12
		- 언어적 비언어적 상담스킬 2		12
고객 상담기업 (심화)		- 상담의 사례 연습	20	12
		- 불만처리 기법 및 고객만족도 측정		4
		- 의료사고와 의료윤리		4
홍보 및 마케팅		- 의료마케팅의 이해	12	4
		- 본국 의료관광 환자 시장 발굴법		4
		- 국제의료관광상품의 현황 및 기획		4
문서 및 보고서작성	- 의료비 청구 실무	24	8	
	- 보고 및 문서작성 실무		8	
	- 전자차트와 고객관리 프로그램 실무		8	
체험교육 과정 (실습) :48시간	과별 실습	- 성형외과 실습	48	12
		- 피부과 실습		12
		- 치과 실습		12
		- 한방병원 실습		12

## 나.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서정리요원 양성과정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는 도서정리요원을 다문화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다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이고 근무환경이 좋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므로 권장할 만 하다.

### 1) 교육목표

- 도서관 서지분류 체계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서정리요원을 양성함.

### 2) 교육대상

-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
- 한국어 능력이 높은 사람

### 3) 프로그램 구성

- 총 120시간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은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 직업소양교육과정 36시간
  - 2단계 : 전문교육과정 48시간
  - 3단계 : 체험교육과정 36시간
- 교육형식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 이론 84시간, 실습 36시간

4) 과정별 내용구성

<표 4-7> 도서관 도서정리요원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구성(120시간)

대분류	분류	단위과정	시간	
직업 소양교육 과정 (이론) :36시간	한국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 직장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의 조직문화	16	4
		- 근로계약에 대한 모든 것		4
		-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 임하는 법, 구직방법		8
	여성과 일에 대한 이해	- 직장여성의 가족관계 관리	12	4
		- 보육관련 지원 사항		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4
	사기진작	- 사기진작 프로그램 1	8	4
		- 사기진작 프로그램 2		4
	전문교육 과정 (이론) :48시간	한국의 도서관 체계	- 도서관의 조직, 인력체계	8
-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4	
서지자료 분류법		- 서지자료 분류 1	8	4
		- 서지자료 분류 2		4
		- 고전자료 분류 1	16	4
		- 고전자료 분류 2		4
		- 각종 기록물 관리 1		4
		- 각종 기록물 관리 2		4
문서 및 보고서 작성		- 관련 문서 작성법	16	8
		- 관리 프로그램 운용 실무		8
체험교육 과정 (실습) :36시간	도서관 실습	관내 3개소 도서관 실습	36	36

## 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을 끌어낸 당사자로 다문화강사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

### 1) 교육목표

- 도서관 서지분류 체계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서정리요원을 양성함.

### 2)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 본국어, 본국역사 등 관련분야 전공한 사람
- 보통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3) 프로그램 구성

- 총 120시간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은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 직업소양교육과정 36시간
  - 2단계 : 전문교육과정 64시간
  - 3단계 : 체험교육과정 20시간
- 교육형식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 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4) 과정별 내용구성

<표 4-8>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구성(120시간)

대분류	분류	단위과정	시간	
직업 소양교육 과정 (이론) :36시간	한국의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 직업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의 조직문화	16	4
		- 근로계약에 대한 모든 것		4
		-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 임하는 법, 구직방법		8
	여성과 일에 대한 이해	- 직장여성의 가족관계 관리	12	4
		- 보육관련 지원 사항		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4
	사기진작	- 사기진작 프로그램 1	8	4
- 사기진작 프로그램 2		4		
전문교육 과정 (이론) :64시간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문화의 다양성과 소통	8	4
		- 본국(예, 베트남)의 역사, 환경 및 풍습		4
	유아교육	- 유아교육 및 아동발달	8	4
		- 아동심리		4
	교육방법	- 교수방법 기초	32	4
		- 교수방법 심화		4
		- 문화체험교육 방법 : 노래		4
		- 문화체험교육 방법 : 춤		4
		- 문화체험교육 방법 : 음식		4
		- 문화체험교육 방법 : 놀이		4
교육안 작성	- 교구 만들기 및 활용 1	16	8	
	- 교구 만들기 및 활용 2		8	
체험교육 과정 (실습) :20시간	강의시연	강의시연 및 평가	20	20

## 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보조강사 양성과정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는 도서정리요원을 다문화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다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이고 근무환경이 좋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므로 권장할 만하다.

### 1) 교육목표

- 도서관 서지분류 체계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서정리요원을 양성함.

### 2) 교육대상

- 능통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
-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 3) 프로그램 구성

- 총 66시간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은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 직업소양교육과정 36시간
  - 2단계 : 전문교육과정 48시간
  - 3단계 : 체험교육과정 36시간
- 교육형식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 이론 84시간, 실습 36시간

4) 과정별 내용구성

<표 4-9>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구성(120시간)

대분류	분류	단위과정	시간	
직업 소양교육 과정 (이론) :36시간	한국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 직장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의 조직문화	16	4
		- 근로계약에 대한 모든 것		4
		-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 임하는 법, 구직방법		8
	여성과 일에 대한 이해	- 직장여성의 가족관계 관리	12	4
		- 보육관련 지원 사항		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4
	사기진작	- 사기진작 프로그램 1	8	4
		- 사기진작 프로그램 2		4
전문교육 과정 (이론) :48시간	평가 및 매체 활용	-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8	4
		- 시청각 자료 활용법		4
	다양한 방법의 한국어 교육	-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 1	20	4
		-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 2		4
		- 드라마 속 대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1		4
		- 드라마 속 대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2		4
		- 관공서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		4
	교육안 작성	- 교육안 만들기	4	4
	교육생 상담	- 경청하기 기법	16	8
		- 상담의 사례		8
체험교육 과정 (실습) :36시간	교육실습	- 한국어교육기관 대상 교육실습 : 참관 및 업무보조	36	36

### 마.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담보조원 양성과정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는 도서정리요원을 다문화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다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이고 근무환경이 좋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므로 권장할 만하다.

#### 1) 교육목표

- 도서관 서지분류 체계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서정리요원을 양성함.

#### 2) 교육대상

- 본국어뿐 아니라 능통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
- 본국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

#### 3) 프로그램 구성

- 총 66시간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은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 직업소양교육과정 36시간
  - 2단계 : 전문교육과정 48시간
  - 3단계 : 체험교육과정 36시간
- 교육형식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 이론 84시간, 실습 36시간



4) 과정별 내용구성

<표 4-10> 상담보조원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구성(120시간)

대분류	분류	단위과정	시간	
직업 소양교육 과정 (이론) :36시간	한국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 직장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의 조직문화	16	4
		- 근로계약에 대한 모든 것		4
		-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 임하는 법, 구직방법		8
	여성과 일에 대한 이해	- 직장여성의 가족관계 관리	12	4
		- 보육관련 지원 사항		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4
	사기진작	- 사기진작 프로그램 1	8	4
- 사기진작 프로그램 2		4		
전문교육 과정 (이론) :48시간	이주여성과 가족	- 결혼이민자의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	8	4
		- 이주여성이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		4
	가족상담교육	- 부부상담의 기법 1	8	4
		- 부부상담의 기법 2		4
		- 자녀교육 상담의 기법	12	4
		- 알코올관련 상담의 기법		4
		- 가정폭력 상담의 기법		4
	이주여성과 취업	- 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이해	4	4
취업상담교육	- 취업상담의 기법 1	16	8	
	- 취업상담의 기법 2		8	
체험교육 과정 (실습) :36시간	상담실습	- 상담교육의 실제	36	36

---

##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합직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 현황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및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20선을 발굴하였으며 각 직종에 대한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두 개 직종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자 현황 및 취업욕구와 관련해서 2006년도와 2009년도 전국단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2006년 34.2%에서 2009년 36.9%로 2.7%p 증가하여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이민자와 달리 남성이민자의 취업률은 2006년 91.8%, 2009년 74.3%로 한국남성의 취업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비율은 국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을 비롯하여 북미·호주·서유럽, 필리핀, 한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베트남(2006년 7%, 2009년 21.2%), 캄보디아(2009년 12.2%), 몽골(2009년 31%) 출신의 결혼이민자 취업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의 경우, 최근에 입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주로 사적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및 대중매체 홍보물을 통해 취업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이민자는 친구 지인의 소개나 사설 직업 알선기관의 소개로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27.9%에 불과하였다. 남성이 39%로 여성 26%에 비해 13%p 높아 여성의 고용지위 불안정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09만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여성 이민자의 경우 66.7%로 남성의 24.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넷째, 이처럼 결혼이민자 다수는 자의보다 타의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 82.2%, 2009년 85.7%가 취업 의향을 갖고 있었다. 취업 희망 직종을 비교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문준전문직(20.2%), 자영업(17.7%), 사무직(14.6%) 순으로 희망하였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자영업(31.6%), 전문준전문직(25.3%), 공장·육체노동(22.8%)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77.6%로 높았고, 특히 중국 한족과 태국 국적의 이민자가 각각 86.4%와 87.5%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 출신도 76.7%, 몽골 출신도 66.7%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미취업 결혼이민자가 취업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알선을 요구하는 결혼이민자가 2006년 39.9%, 2009년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이나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가 2006년과 2009년 각각 24.5%와 2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18.3%를 차지하였고,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결혼이민자가 13.7%를 차지하였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직업훈련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교육(35.5%)을 비롯하여 컴퓨터·정보통신(15.1%), 음식(13.2%), 미용·피부(9.7%), 운전면허(7.6%), 의복(6.5%)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횡적·종적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부처별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지 모호한 경우도 발견된다. 부처 간 상호 원활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기획이 이루어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

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차원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 별로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 자치 단체의 관심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수가 많고 지역적 관심과 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에 밀착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넷째, 취·창업 정책 사업이 몇 가지 특화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지원 교육 및 사업의 대다수가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강사 등 소수 직종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학력이나 연령, 경력, 결혼과정, 거주지역 등에 있어 국적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동질집단으로 보아 개별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 개발이 미흡하였다. 최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점차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단계별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단기적인 사업이 대다수이며, 일회적인 행사성의 프로그램도 있다. 직업훈련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하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인 적합직종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은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3가지 경로를 통해 선정하였다.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

한 분야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 강사, 다국어 콜센터 직원을 선정하였고,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로 다문화 음식점, 다문화 카페를, 다문화기관 지원인력분야으로 한국어보조강사, 상담보조원, 그리고 산모도우미를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분야로는 도서정리요원, 제조업생산직 취업, 대형마트 카트 정리원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분야로 영양보호사 POP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를, 기타분야로 영농인력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각 직종별로 선정배경, 업무내용, 사업대상자의 요건 및 직업가치에 대해 제시하였고, 각 직종별로 취업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중 다국어 지도사, 다문화카페, 제조업체 취업의 경우는 경기, 부산, 경북의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직종의 하나인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이론 및 실습교육 포함 총 200시간으로 이루어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도서정리원, 상담보조원, 다문화 강사, 한국어보조강사에 대해서도 이론 및 실습교육 포함 각각 120시간으로 구성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2. 제언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활발한 취업연계가 가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주,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지원

#### 1) 체계적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체계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상담단계, 직업교육단계, 취업연계단계, 그리고 사후관리단계의 4단계 시스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가) 취업상담단계 : 결혼이민자 인력DB 구축과 다양한 취업상담

##### ① 결혼이민자 인력DB 구축

결혼이민자 취업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인력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취업관련 정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의 첫 단추는 그들의 인력DB를 구축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국인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력DB를 통해 이들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때 결혼이민자 인력DB는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인근 시군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에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단위 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② 특화된 취업상담 실시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상담을 실시할 때는 본국인 상담보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본국인 상담보조원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낼수 있다. 본국인 상담보조원은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결혼이민자 취업상담 지원과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상담시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기관의 담당자들은 결혼이민자 자신보다 배우자나 시부모의 몰이해로 인해 구직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시변두리 지역의 경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직업교육단계 : 직업 사전교육의 강화와 직업교육 실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합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직업교육 자체보다 직업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 자체보다 직업교육 사전교육 격인 어학교육, 컴퓨터 교육 및 운전면허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점은 제2장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취업상담단계에 이어서 직업교육단계에서는 직업 사전교육으로 직업소양교육, 한국어 교육,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실시.점검한 후에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직업소양교육 강화

취업취약 계층은 취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도 부족하지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일반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교육 시에도 직업소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구인처도 직업훈련 자체보다는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바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직업소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상황인데다 문화적 차이가 큰 타국에서 취업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직업소양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종 유의한 정보도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업소양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직업생활 부분, 여성으로서 직업생활 부분, 그리고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일반 직업훈련반과 구분 없이 강좌를 수강하기도 하고, 결혼이민자에 특화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별도 수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일반 직업훈련반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라면, 이들에게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소양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② 한국어교육 및 정보화교육 실시

제2장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도 직장 내 의사소통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컴퓨터교육 등 정보화교육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지만, 실제로 많은 직업에서 정보화능력을 필요하므로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직접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은 직장생활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므로, 정보화교육이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앞서서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③ 직업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 시에는 다국적의 교육보조강사를 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사결과 다국적의 교육보조강사가 통역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생 상담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교육보조강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우 별도반 교육을 권장한다. 별도반과 내국인 합반의 차이점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직업교육의 경우 초급반에서 내국인과 합반을 했을 경우 결혼이민자가 교육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별도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내국인과 합반수업을 하도록 한다. 특히 심화반 이상부터는 합반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국적별 수업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지만, 특정국정을 한반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하나의 취업과정을 교육받은 것이 차선이다.

#### 다) 취업연계단계 : 구인자와 구직자의 합의점 찾기

특별히 이루어지는 맞춤형 취업이나 창업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취업연계 시에는 구직하는 결혼이민자의 적성검사, 직업훈련교육 이수현황, 본국 및 한국에서의 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을 알선하도록 한다. 이때 구인처의 인력수요 조건에 맞춰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직 결혼이민자에게는 동행면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구인처의 요구조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취업연계기관에서는 현실 가능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라) 사후관리단계 :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 기관에서 통역자(혹은 본국 출신 상담원)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를 고용한 업체나 고객대상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직업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고용업체나 고객 입장에서도 결혼이민자와 취업연계 기관에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이민자의 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각 개인별로 직업훈련 수료 후 및 취업 후 최소 1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취업 후 2개월까지는 1주일에 1회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2개월이 끝날 무렵

통역자를 대동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다. 그리고 취업 후 6개월까지는 1개월에 2회 전화상담, 취업 후 7개월이 되면 매월 1회 전화연락을 하고 취업 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사후관리를 종료한다.

사후관리 차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할 때는 주로 직장적응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데,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오는 갈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직장적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장적응지원 갈등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및 근무 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관련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심층상담이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해 준다.

아울러 취업한 결혼이민자의 경력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한 결혼이민자들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재직자 직무향상능력, 자기성장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학자금 대부, 여성고용지원금 관련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재직근로자교육과정을 개발·실시할 수 있다.

## 2) 취업 중 일시보육 실시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서해정 외, 2009). 그러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때 일시보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보육 제도가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수강을 꺼리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수강 시간동안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보육실의 마련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교육기관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절하게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나. 고용주를 위한 정책지원

### 1) 결혼이민자 채용장려금제 신설

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기업주에 대한 채용장려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용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한다면, 결혼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를 독려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거주기간 등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채용장려금제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 2) 결혼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체 사후관리

결혼이민자가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기관과 결혼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구인업체(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이 높은 기업에게는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을 방문해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이때 장려금 혜택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홍보해 장기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직장 내 의사소통훈련 등 여성친화기업 조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3)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고용주교육 실시

기업주의 다문화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꾸준하게 인식전환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주의 인식전환 사업에는 각종 홍보책자의 배포나 기업주 대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배포하거나 기업주 대상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다음에 제안할 가칭)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를 통해 기업주 대상 교육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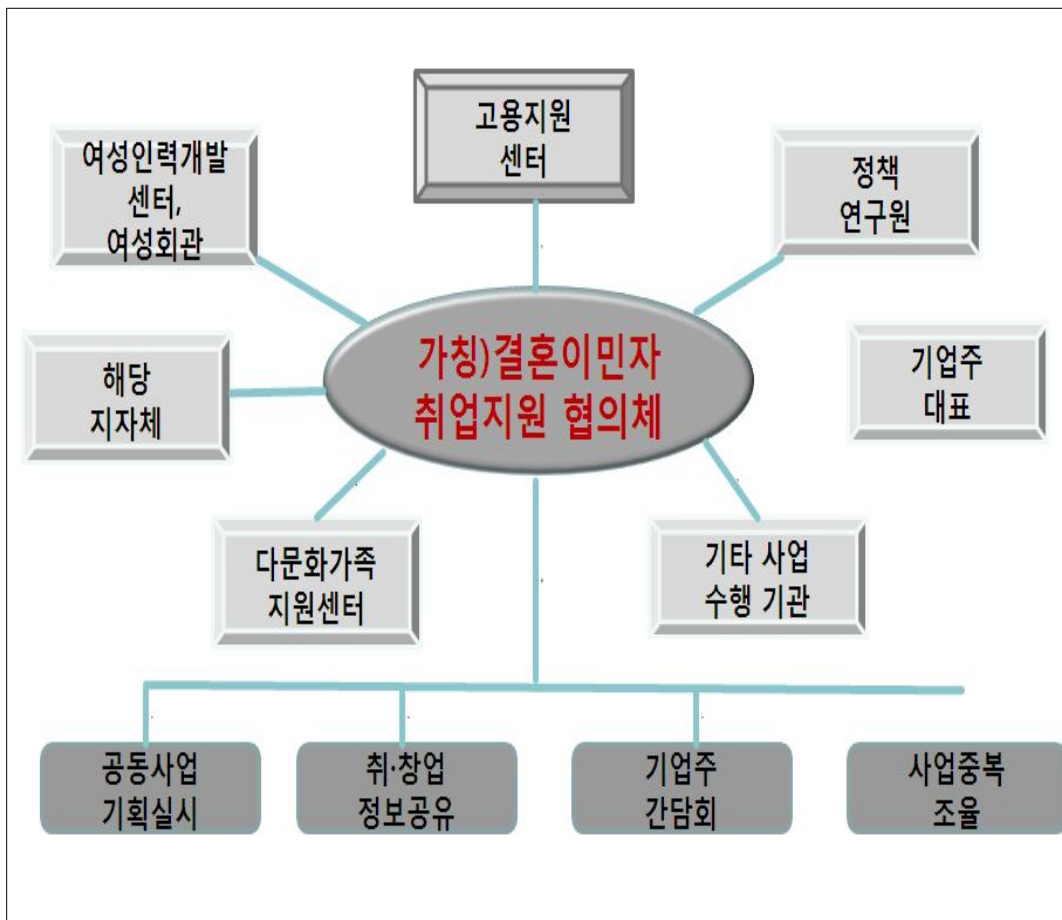
##### 1) 가칭)‘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효율적인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가칭)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가칭)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으로는 해당 지역 주무부서를 비롯하여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여성교육훈련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업주대표, 정책연구원 및 기타 사업수행 기관 등이다. 이 협의체는 각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서 정기 및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사안을 논의한다. 이 협의체의 역할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협의체 내 여러 기관이 지역공동사업을 기획·실시하거나, 둘째, 결혼이민자 취창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창업박람회 실시하며, 셋째, 기업주대상 간담회의 실시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전환 사업을 수행한다. 끝으로, 동일지역 내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을 막기 위해 개설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마다 결혼이민자 취업관련 인프라나 처한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16개 광역지자체에 속하는 1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추후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5-1>은 이상에서 제시한 가칭)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5-1> 가칭)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2)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기업주와 더불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있

고, 때로는 결혼이민자를 비하하는 간판이나 기타 광고물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진 편견을 불식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사회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리잡은 결혼이민자의 사례를 부각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를 친밀하게 느끼고 바람직한 결혼이민자상을 심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 그리고 창업성공 후에 자원봉사 등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신이 받은 혜택을 나누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일규·고혜원 2003. 「직업과 직업생활」. 선학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IOM이민정책연구원. 2009. 전국다문화전문가 정책간담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도 제2차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김경아. 2008. “충북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59-193.
- 김병숙. 2008.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욕구 및 직종개발 연구.” 대전여성포럼 자료집.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63~106.
- 김애령. 1998. 「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김영주. 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영혜.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특성 및 결정요인. 『한국사회학회』, 1~16.
- 김영혜. 2007.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현황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영혜·손기영·박상희.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경·조애정·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숙·김승희·김신영. 200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 지원 실태조사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숙. 200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163-177.
- 김형균. 2006.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위원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용역과제』 6-8.
- 노동부. 2010. 3. 2. 정책뉴스.
-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31. 정책뉴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대한YWCA연합회. 2008. 「결혼이민여성 직종개발연구 보고서」.
- 대한YWCA. 2010. 1. 8.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은 삶의 이유” 헤럴드 뉴스.
- 법무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이드북」.
- 보건복지부. 2009. 「가족사업안내」.
- 박재규·이윤애.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민경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방안 지원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서해정·구현아. 2009.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

- 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학회 2005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8.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 『아시아여성연구소』, 47(1): 139-178.
- 신경애.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인선. 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여성부. 2010.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추진계획」.
- 유의정·조규범·조주은. 2010.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보고서.
- 윤인진·송영호. 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25-44.
- 이선주·양애경·장미혜·최현미·송성실·송유나.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형. 2006. “국제결혼 농촌 이주여성 가족의 정착지원 방안.” 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 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이운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이진숙. 2005. “여성이주의 현황과 쟁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중심으로.” 『사회운동』 57: 98-108.
- 이혜경.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2):121~153.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명선. 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활성화 방안: 지역적 특색에 따른 모델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이옥경. 2008.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장서영·김이선·이로마·장인자·유지영. 2008.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부.
- 정기선. 2008. “경기도 거주 외국인 증가추이(2007~2008).” 『동향분석』 제4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김명화. 2004.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조석주·이상목.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충북지역 이주여성의 취업수요 실태조사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통계청. 2001~2008. 『인구동향조사』.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95-219.
- 장서영 · 은혜경. 2008. 「주부재취업 도전직업 55」. 한국고용정보원.
- 한영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전라남도.
-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주민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10. 2. 16. 정책뉴스.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

---

---

발행처 노동부 고용정책실

Tel. 02-502-5441

발행일 2010년 6월

인쇄처 신문사

Tel. 031-255-2157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